

살림은 줄고 고추고, 사공은 배를 다루며, 독수는 나무를 다듬고, 슬기로운 이는 몸을 다루네.

(法句經·도정품 171절)

東大新聞

주최	동국대학교
편집	동국대학교
발행	동국대학교
인쇄	동국대학교
주소	서울시 중구 동국로 100
전화	02-267-8577
팩스	02-279-1270
발행	1990년 5월 30일
인쇄	1990년 5월 30일

제 1051호 (주간)

1964.1.11 동국대학교 창립 26주년 기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5월30일 (수요일) 【 1 】

총장선출 위한 교수회 총회등 준비 학생회 3자 연석회의 요구 "거센 반발"

서울·경주 캠퍼스별 총회 열어 의견 수렴

교수직선 총장선거 불투명 상태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서울 캠퍼스 교수임시총회’가 오는 31일 오후 3시 동국관(L301)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2월16일 전체교수 임시총회에서 총장후보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의해 일방적인 총장선출이 이루어진 후 3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교수총회’로 그동안 별 움직임이 없던 교수회가 총장선출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그러나 이번 서울캠퍼스 교수임시총회는 당초 전체교수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열린 서울·경주 전체대의회의에서 “전체총회를 열 경우 비용충당 등이 부담

된다”며 “캠퍼스별로 나누어 개최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오는 31일, 경주캠퍼스는 오늘(30일) 각각 열리게 된 것이다.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건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의 진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이번 임시총회는 △총장후보의 교수직선 여부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안개정의 필요성 여부 등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전반적인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논의될 의견들이 결정사항으로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교수들의 인색은 “총장후보선출에 관한 교수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단순한 의견수렴의 임시총회이지만, 경주캠퍼스임시총회에서의 의견들이 서울캠퍼스와 동일하다면 이후에 교수회의 결정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임시총회 진행과정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학기 장학금 15억여원

서울·경주 총 4천3백여명에 지급

학교당국은 '9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을 지난 28일 최종 집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학기 서울·경주캠퍼스에 지급된 장학금은 4천3백63명에게 총 15억1천2백17만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2천7백69명에게 총 10억3천6백61만6천원이 지급됐는데 그중 교내장학금이 2천4백64명에게 8억9천9백46만9천원이 지급됐고, 교외장학

'신흥장학금' 지급 1백여명에 1천5백만원

신흥장학금(이사장=憲法스님)은 오늘(30일), 일반·승려학생 1백여명에게 총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설악산 신흥사가 운영하는 장학기금으로 지난 87년부터 서울 및 경주캠퍼스에 재학중인 조계종 승려와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왔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내역을 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법과대학생회 및 법학과 학생회별 성적최우수자와 본사기자 1명등 일반학생 6명에게 각 50만원씩, 승려학생 38명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경주캠퍼스는 법학과 각학년별 성적최우수자 4명에게 50만원씩, 승려학생 전원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한다.

근로장학 자치협 결성 근무조건 개선등 요구

근로장학생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장학생자치협의회'(의장=이승철 불교3)가 지난 26일 결성되어 설문조사, 학교 측과의 면담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근로장학생임금 및 처우개선을 하고자 학생 8명이 지난 21일 1차모임을 갖고 서명작업을 통해 결성되었

다.

현재 1백9명인 근로장학생은 주평균20시간의 노동시간에 도서판, 유체국, 계산고시사 등에서 일하고 있다.

또 이회는 장학금증액, 근무시간단축, 현재수혜액에 2만7천원 인상등을 요구하며 趙炳精 학생자치협의회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보리수

요즘 MBC의 주말 연속극으로서 방영되는 "배반의 장미"에 대해서 주부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이는 작가가 펴지는 이야기의 줄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가 하면, 다른 이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평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에 참석한 한 주부는 "나는 절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

전국고교 백일장 성향 단체상에 경동고문에반

본사 주최 '제28회 전국고교 문학콩쿠르'본선이 지난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시조·소설·수필 부문에 입선한 전국 남녀고교생 1백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8·9면)

개회식에서 본사주관 최정호(법학)교수는 "동국은 3백여명의 문인을 배출한 명문대학"이라고 본교 소개를 한후, "좋은 글을 써서 한국문학의 주축이

불동如來

안하려는 것이나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작가가 만드는 연극에 속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사회에서 남들이 펼치는 위선의 쇼에 속게되고, 또 남들에게 불명 담하는 것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자기라고 믿어온 허상에 의해 속게 된다.

불경에 나타나는 不動如來 즉 "흔들림이 없음을 체달하고 실현하는 부처"는 남이나 자신이 펼치는 연극에 속지 않으려고 피하지 않는다. 汚濁惡世속에서 남이나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지만 마음바닥이 전혀 動하지 않을 수 있는 覺者이다. 우리는 부득이 갖가지의 쇼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바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釋之鳴

교수 동정

▲金吾雨(경영학) = 오는 7월 12일부터 8월15일까지 학습연구차 독일방문 예정.

▲박석진(의학) = 다음달 1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7차 미국해의학회 참석차 출국예정.

동대신문 40주년 기념 / 동국정신 선양 기획광고

자비의 빛 헤지의 빛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 한줄기 눈부신 東國의 빛
큰광명 큰지혜 큰힘으로 누리의 아름 밝하노니
우려보라 진리의 동산 학문의 성화 높이 들렸다
가슴마다 눈부른 이상 오직 의기에 찬 젊은 모습
이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社 說

이완된 회계계 대중주체로 바로잡자

지난 23일자 본지에 실린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시지연소식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그것은 학생들의 명실상부한 자치조직인 학생회가 일파만복 학생대중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에 기반해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기 때문이다.

1/4분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생회간 부패의 감시전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지출에 있어서의 장부미비, 영수증기비등과 문제와 아울러 학생회사업에서의 각단체 운영위원회, 집행부와의 연계가 제대로 안돼 사업집행에 무리가 있는 단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인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했다.

민주집중제의 확립부터

22대 총학생회는 출범이후 여러사업을 벌여왔다. 눈에 띄는 것은 정치부패, 그리고 좋은 법제기운운동의 복지사업도 전개했다.

그러나 가시화되는 사업의 일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2대총학생회가 출범당시부터 내걸었던 '민주집중제'의 확립이다. 1만여 동아인의 대표기구로서 1만동아인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위해학생회에서부터 수렴해내고 상층의 간부들은 그것을 공부 화시켜내는 지도의 내용을 갖고, 그에따라 대중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학생회를 제시 했음은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감시에서도 드러났듯이 학생들이 인원으로 운영되는 학생회의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올바르게 적체적소에 배치는 되었는지조차 알기 힘들게 된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학생회의 예산이 부정적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간부들의 결의수준적대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헌신성부족을 말하려는 것이다. 지난 19일의 경주전대협총회가 끝난이후 지금까지 총학 운영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체계의 오류를 노정할 것에 다름아니다. 광주총학이전에도 대중적인 논의와 토론보다는 상층부에서 '가노나' '안가노'로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학생회를 대중의 손에

학생회는 결코 활동가들만의 것도 정파 소유물도 아니다. 학생대중들은 학생회활동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생활의 기초를 익히게 되고 나아가서 이땅의 모순들을 깨닫고 부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내는 커리큘럼의 문제를 통해 스스로의 권리와 청년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깨닫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높은 단계의 정치투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내고 그에 기반해 학내 사업부터 시작해 학외정치투쟁까지 이끌어 내는 학생회의 구조는 아니었다.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대중적 논의와 의사수렴과정이 전제되는 학생총회나 학생대표자회의가 단 한번도 열리지 못한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제는 더이상 상층만의 논의, 활동가들만의 집행으로는 학생대중들을 학생회 주체로서 세울 수 없다. 88년도의 학원지주화투쟁이 몇몇 머리좋은 간부들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중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움직임이 모아져 커다란 학자투의 불꽃을 뜨지 않았던가.

학생대중들은 누구보다도 우리학교의 모순과 이사회에의 모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의사를 수렴해 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모든 상층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대립은 대중적인 논의의 활성화, 즉 학생총회와 같은 총화된 형태의 의사수렴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다.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통일단결은 정파간의 통일단결이 아닌 대중적인 통일단결이었기 때문이다.

5월대중제가 끝나면 기말고사가 있고 이후 방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방학 중에도 우리학교 학자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총학생회'라는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현재는 지난 1학기의 학자투에 대한 물이므로 인해 단위조직이 와해된 상태이다. 이런 조직들을 사급히 보완해내고 그 토대 위에서 어용세력들의 음모를 파산시켜내야만 한다.

지난해의 치욕적인 총학, 이사회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씻기위해서라도 시급히 현재의 잘못된 학생회구조를 바로잡고 다가오는 민주총학생회와 6-10대투쟁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대중적 논의로 혁신을

아무도 스스로 단결의 구실이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간부들이 먼저 단결하고 대중에 의거해 사업을 해나가려는 자세를 견지할때 그때야 비로소 올바른 학생회가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대중들도 자신이 속한 단위 학생회활동에 활발히 참여, 침체되어 있는 회사업에 힘을 주어야 한다. 모든 회사업의 중심은 대중이며 대중을 주체로 세웠을 때야만 '민주집중제'는 가능한 것이다.

미 전략 관철로 '삼각군사체제' 구축

항일투사 분노케 한 방일, 무엇이 본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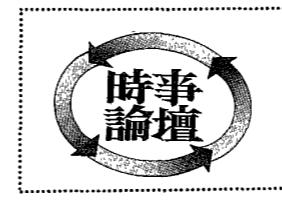
김 동 혁 (월간 일誌 편집국장)

1932년 1월 8일, 관병식을 마치고 공안으로 들어가려던 일왕 히로히토를 처형하려고 가슴에 품고 있던 폭탄을 던져 전세계에 한민족의 항일 투혼을 알렸던 이봉창 열사. 그는 이듬해 10월 10일 교수형을 처해졌다.

현재 그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는 그 혼난 동상이나 추모비 하나없이 용산 요정공원 안에 묻혀 오늘날의 역사를 통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살자 히로히토를 죽이지 못해 57년간이나 더 살게한 것이 억울할 뿐이다."

노대통령의 방일문제를 예기 하기에 앞서 이봉창 열사를 거론함은 이 열사가 수행하고자 했던 역사적 임무가 아직도 우



리에 유혹하기 때문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본도를 허리춤에 차고 항일 독립투사를 심벌화했다고 일왕 히로히토에게 충성사약을 했던 박정호, 해방직후 반민족분자로 처형되기는 커녕,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되어 독립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이세에 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니 부끄러워

아시안의 폐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장기 전략에 발려든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신군국주의적 장기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일본분회의 무차별적 한국상륙을 그 서곡으로 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일본문화가 청소년층에까지 침투된 상황에서 일본영화등 민족의 정서를 교란시키는 대중매체까지 들어 온다면 일본은 한국을 일단 '문화침략' 시키는데 성공할 셈이다. 그것은 곧바로 남북분단을 영구히 고착시키고 친일잔재의 청산이라는 민족적 숙원사업을 좌절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미 군사동맹'을 끊임없이 확대하

여 제강이 되어야하며, 교원양성은 사범대학으로 단일화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예비교사 탄압을 막을 수 있다. 교원양성 단일화를 위한 비사범계제에는 첫째, 90학년부터 적용될 제, 둘째, 사범대학에 설치되지 않은 학과는 일부러용이라는 2가지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84년 전투원회는 일본을 방분하여 만찬사에서 '천황 폐하의 만수무강을 빌나'라는 사투로 시작하여 '천황폐하의 만수무강을 위해 속배를 들사'라며 끝을 맺는 애국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수십만의 우리민족을 살려준 학살원 용에게 '만수무강을 빌나'는 말을 들은 일본인이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대인 학살 독립전쟁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민족정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라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항일투쟁의 저 빛나는 정신은 아직도 견제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용솨우치며 불타오를 것이다.

노대통령이 아키히토 일왕에게 한국방문을 요청하였다 한다. 아키히토가 '통식의 염'이 아닌 '통치적 참회'하며 무릎 꿇으며 오지 않는후 수천 수만의 이방장 열사의 후예들이 그를 김포공항에서 기다리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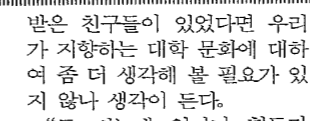
'아시아패권' 노리는 신군국주의 음모

친일잔재청산 '역사적임무'로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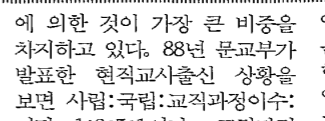
"돈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미친듯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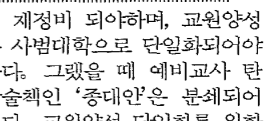
박재원 (불교대·인도철학과)

박재원 (불교대·인도철학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송오미 (사범대·국어교육과)

송오미 (사범대·국어교육과)는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이경숙 (인문과대학·국어문화과)

이경숙 (인문과대학·국어문화과)는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東 國 漫 評



이철성

이철성 (동국대·국어교육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이철성 (동국대·국어교육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이철성 (동국대·국어교육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이철성 (동국대·국어교육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이철성 (동국대·국어교육과)은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진정한 대동제로서 '축진'되길 바란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는 고대신문 기자들의 편집자율권 수호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고대신문 제작 중지사태를 알립니다!!



<경과보고>

○1990년 1월 1일자 신년특집호로 편집진에 의해 16면 기획, 주간교수 2~3개면 삭제 이유는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 학생회 기획 단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면삭제 불가 입장 전달. 주간교수 만일 삭제하지 않을경우 학생기자들을 해고시키겠다고 경고. 우여곡절끝에 12면 제작. 주간교수 신문이 완성된 후에도 지엽적인 내용 2가지를 문제삼아 배포금지함.

※이후 제작된 모든 신문에서 무리한 사전검열과 지면내용에 대한 간섭이 있었음.

○1990년 4월 2일자 4면 게재예정인 기획 「사회주의권 변화의 이해를 위하여」가 문제되어 발행중단. 주간교수 반대되는 입장인 기사를 게재할것을 끝까지 고집.

○1990년 4월 18일자 4-19 30주년 기념특집호 6면의 원고내용(4-19의 연구 현황과 그 문제점, 사회학과 4-19자료집요약)이 문제되어 제작은 끝났으나 인제가 중단되어 결국 발행되지 못함. 이유는 두개의 글이 「비슷한 입장이다」.

○1990년 5월 5일자 개교기념 특집호, 주간교수 사설 「KBS,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하여」를 문제삼아 또다시 발행중단함.

◇고대신문사 기자들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발행당국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없이 5월16일부터 편집실 철야농성에 돌입.

<우리의 주장>

현 고대신문 주간교수는 즉각 퇴진하라

끝났는데 4번씩이나 고대신문이 발행중지된 것은 전적으로 주간교수의 독단적 판단에 근거하는 바 흥기선 주간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가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야만 한다.

학생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라

주간교수에 의한 사전 원고검열, 발행중단, 배포금지등의 조치는 학생기자들의 편집자율권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신문사의 민주적 제작 질서는 확립되어야만 한다.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연합회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 일동은 신문제작에 관한 어떠한 방해공작도 단결투쟁으로 분쇄해 낼 것입니다



1. 소련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소련의 아-태지역 정책에 대한 전략적 지위 변화를 보여주는 근거로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련은 동북아에서 미국·중국·일본의 협력관계가 반소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일본의 경제 및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제 금융상의 지위 상승, 기타 아시아 나라들의 경제성장도 경제적으로 소련의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변화의 주요한 근거이다. 특히 동북아의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통해 신중공업의 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시베리아 개발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고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소련의 정책변화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고르바초프의 '정리노스키르' 연설이다. 1988년 9월에 행한 이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한국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아시아지역과의 경제협력, 그를 위해 '경제특구'의 신설과 경제관계수립을 표명했다. 그것의 본격적인 결과로 무역대표부의 설치와 영사처의 설치이다.

이것은 소련 평화공존론이 갖고 있는 일국적 차원의 계급투쟁과 세계적 차원의 평화구조 정착이 분리되어 전개된다는 것의 확인이다. 이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지위상승에 따른 경제협력 증대의 필요성과 미국·일본의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이 초래하는 군사적 긴장의 강화라는 동북아의 모순구조에 대한 소련의 접근방식의 모순을 보여준다. 소련의 동북아정책은 이미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소련의 내부체제가 정리되는 데로 가시화되고 있다. 3월 15일 고르바초프는 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블라디보스톡과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발표한 모든 것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해 주는 증거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제안된 가장 태평양의 이이다. 유럽의 안전보장협력회의(CSCE)같은 회의를 창설하여 군사적 문제를 다룸으로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동시 및 동북아 각국과 소련과의 경제협력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2. 중국, 북한의 입장과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를 규정하는데 있어 중국과 북한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주의권에서의 위치는 급속히 전개되는 동구권의 개혁과 더불어 고려할 때 동북아 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동북아에 있어 사회주의 다원화의 양속으로서 양국은, 최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북한 방문을 통해 동유럽의 충격에 대비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중국·북한은 소련

3. 미국의 동북아정책

미국 대외정책의 기초는 89년 4월 제출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 데라, 인권, 과학기술, 지역분쟁 등에서 소련과의 협력 추구를 대담트의 진전이다. 그러나 소련의 지속적인 군축제에는 군축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대담트 국력을 서유럽의 전제에 확산시키고자 함으로써 '한상유지+α'라는 미국의 정책기조에 반발했다. 동구의 개혁과 서유럽의 평화구조에 대한 접근은 미국 역시 군축의 테이

4. 동북아 정세특징

동북아정세를 규정하는 사회주의의 권과 자본주의의 세력관계를 검토한다. 먼저 동북아의 사회주의권은 동구권과 달리 지난한 계급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해방을 쟁취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 있어서도 자립적인 경로를 밟아왔다. 이는 세계 사회주의권에서

◇ 글심는 차례

1. 페레스트로이카 총론
2. 경제개혁의 쟁점과 논리
3. 정치개혁의 쟁점과 논리
4. 평화공존론의 쟁점과 논리
5. 자주적인 대응전략

구될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유해인재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여기서 소련의 아시아에서 평화적 공동체라는 제안이 북한의 동의를 이

달리한다. 소련의 입장에서 평화공존이론이 갖는 규정, 일국적 차원의 계급투쟁과 세계적 차원의 평화구조 정착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서 두개의 한국을 승인 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동북아의 평화구조 정착이라는 목표 앞에서 놓여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간의 이해는 구체적으로 두개의 한국으로 의화될 소지가 있다.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의 문제가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를 갖게되어 민족민주운동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미 6공의 등장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민권의 우려는 있었으나, 이제는 남·북의 문제도 되었다. 김영삼과 박철언의 소련방문 이후 소련과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여러조짐들이 한 소 양국에서 드러나 있다.

노태우정권은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보혁파의 완성을 꾀하고 있다. 거대한 보수와 예소산 진보의 국면을 유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급진 세력으로 탄압하고자 한다. 이것은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이 야기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통일에 대한 민중적 요구를 자신들의 전략에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축적 구조의 체편에 따른 막대한 실업자의 양산과 민중생존권의 침해를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부분적으로 확대되는 중산 관리집단의 보수화를 기초로 민중 지배 구조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교차승인과 동시가입을 전제로 하는 동구권 북핵,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제기되는 군의 개혁 문제에 대하여 계급적 위기의식과 북한을 연계시켜 오히려 국방비의 증가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권의 단거적인 대응은 민중전영의 강화로 전방하는 민주연합의 조직적 완성이다. 북한의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를 반민주연합으로서 민자당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중 전영의 강화와 전방하는 민주연합의 조직적 완성과 북한의 핵구적 보수·혁신투쟁을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지배전략으로 폭로하는 것은 평화구조의 유리한 측면 즉, 주한 미군의 감축에 따른 핵위협 증가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나아가 남·북 군사력의 감축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교차승인과 동시가입이 갖는 불만 고착화라는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남한의 계급적 역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나, 7·4공동 성명이 유신독재의 서곡임을 분명히 남·북 간의 최대정치강령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세 변화를 민권적인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유원한 전술의 구사가 더욱 필요인 시기이다.

김형민
(전민권 편집자)

민주대연합 완성으로 평화구조이용 필요



◇분출되는 민중들의 투쟁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 영향력을 일정정도 거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는 소련이 제기할 수 있는 태평양회의에 수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까닭은 아시아의 상황이 유럽과 다르고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의 영향력 강화의 국면을 초래할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북한과 중국에게는 있다. 그러나 미국·일본이 동북아에서 유일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가운데 소련의 적극적인 군축노선이 갖는 긍정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중국·북한의 틈새를 열어준다.

북한은 특히,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요인과 역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성숙

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했다. 90년 국방장관의 감축계획 발표, 유럽법력 감축제안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대소봉쇄전략의 포기라는 본질적 수정은 아니다. 기존의 군사적 동맹체제의 강화와 서유럽독점자본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혼란 과정에 전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서독 기반당 정부의 통일안이 갖는 내용이기도 하다.

서독 외무장관 겐서는 미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동독의 나토 잔류, 그러나 현 동독지역에 나토군 진출 보류와 소련군 주둔 인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일안을 제시, 미국의 찬성을 얻어냈다. 이것은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에 서독 철수장이 제안한 3단계 통일안이 갖는 군사적 문제의 접근회피라는 문제지적에 대한 답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은 소련 및 동구권의 군축 요구를 군사력의

미국, 교차승인으로 통일이요구 지배강화에 이용 군사력 감축-보안법철폐등 다각적 투쟁 벌여야

되는 요인으로서 현정세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군 유해를 인도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 장구를 개설하고자 노력하는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군사문제에 대한 대화를 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은 전쟁의 위험을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중국은 미국과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 계획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일정하게 동북아의 긴장완화 방향으로 귀착될 수 있겠으나, 한국내의 계급 역관계에 변화에 의해 오히려 이들의 영향력이 축소, 동북아의 헤게모니 상실로 나갈 우려도 있다. 즉, 한국의 강대할 정권에 의한 국내평정이 가능하게 될 경우 두개의 한국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미국의 영향력이 일본과의 군사대국화와 태평양 국가의 미국·일본에 의한 중축이 유지 강화되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압력은 개방의 요인으로, 또는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 국제적 고

효율적 배치라는 측면에서 대응하면서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꾀하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군사력 배치의 관건인 해군력의 유지, 강화와 지상군과 공군의 부분적 철수가 그것이다.

그런데 동북아의 중남미에 있어서는 각나라가 독점세력의 강력한 국가강화로 미국의 이해가 유럽에 비해 더 편될 수 있다는 특수한 성격으로 미국의 의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파나마의 침공이 이루어졌다. 이는 '힘'의 위력을 통한 세계지배의 전략이 아직 미국의 전략임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동북아에서도 상황은 같다. 89년도 한·미 정세 안보회의에서 찾게, 한·미연합 방위력 증강 계획과 전지구 동북구 지원 체계, 한국의 자기방위의 책임준수에 합의했다. 즉, 대소봉쇄기지로서의 한국이 갖는 전략적 지위가 불변이고 외교적인 전투력 배치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부담을 증대시키면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동북아의 자본주의의 국가는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의 전일적 지배 하에 오랜시간 놓여왔다. 강대한 지역 자본주의의 국가로서 일본도 좌우파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좌파세력은 극히 미미하다. 이것은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 사회주의권의 다원화, 자본주의의 미국의 전일적 지배라는 특수한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이다. 이 단계로 소련은 다원화된 사회주의권의 평화의 결합,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평화구조가 관철시키고 있는 두가지 측면, 두개의 한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과 군사력 감축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북한 안보회의에서 제안한 UN에 하나의 의외로 가입자는 것은 현재 높아지는 UN동시가입의 문제에 대처하는 북한의 입장이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과이어올러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즉 한반도의 광범한 군축과 평화협정의 체결 등을 위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 주한미군과 핵방기의 완전철수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추

기된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한국과의 접근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단순한 교류의 문제는 일단 보류한 채 정치 군사적 관계를 주요하게 처리할 것을 추진하리라 예측된다. 이는 교류의 문제를 중시하는 남한 당국의 입장과는 일정정도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분간 적실한 회담 등의 단순교류는 어려우리라 예측된다.

6. 정세변화에 대한 민족민주운동의 대응전략

두개의 한국과 군사적 지배력의 확보라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현재의 평화공존체제는 상호 모순관계를 갖게된다. 동북아의 정세를 규정하는 정치적 영향력에 자신하는 미국은 평화공존이 규정적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사력의 효율적 배치와 반미감정의 약화 기도로써 주둔군의 철수를 계획한다. 이는 평화구조의 전개와는 분명 제(?)를

1990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생모집

1990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일어일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연극영화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조경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제약학과·기정학과·한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기정학과·한의학과

3. 시험과목

가. 석사학위과정
(1)시험과목: ①영어 ②전공 ③구술고사
(2)시험내용: 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 시험, 전공시험은 각 학과별로 공통필수 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나. 박사학위과정
(1)시험과목: ①영어 ②전공(공통, 세부전공) ③제2외국어 ④구술고사
(2)시험내용: ①영어시험은 4개문항의 독해력 시험이며, 전공시험은 학과공통과목 및 세부전공과목에서 출제하며, 구술고사는 각 학과별로 실시함.
②제2외국어 부과학과: 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한의학과
③제2외국어시험과목: 불어·독어·일어·영어·한문·중국어·태국어(단, 법어는 인도철학과, 한문은 국어국문학과·국민윤리학과·철·경찰행정학과에 한함)

대학원 연구논집 논문 모집

본 대학원 '90년도 대학원 연구논집(제20집)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1. 논문집 명칭: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제20집)
2. 원고대상: 본 대학원 교수·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3. 원고매수: 700자 원고지 35매내외(영문용어 및 도표포함)워드프로세서도 가능.
4. 원고제출: 본수: 원본포함 4부
5. 논문 모집기간: '90. 7. 2(월)~8. 31(금)까지
6.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

※기타 상세한 것은 대학원 교학과(직통 275-3256, 교환 267-8131(2253, 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접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가. '90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 나. '81년 이전 입학자로서 실과과 지정학과 졸업예정자
2. 자격: 교과 및 전공과목(전공기준 포함)성적이 평균 80% 이상인자(교과과정이수자에 한함)
3. 접수기간: '90. 6. 4(월)~6. 8(금)
4.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 1부
5.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이부대학 교학과

사범대학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즉각총선'은 민중에 대한 배신이다

I. 들어가는 말

역사의 흐름을 모르는 전진 속에서, 끊임없이 세세계를 열어나 '생 산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힘을 다 시 한번 확인한다.

장황하게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실 민중의 엄청난 고통과 민중이 끝끝내 반하는 현 정치권의 움직임은 민중에게 '와월'이 아닌 '부평의 필요'를 각인 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상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기초가 상이한 운동 지도부는 현실에 대한 극복 방향을 매우 다르게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과학적인 현실인식에 근거한 투쟁의 제주는 시급함을 느꼈고, 특히 지난 '동대신문 5월 9일자, 16일자'에 제기된 정세분석과 투쟁방향의 제시가 매우 위험한 결론으로 치닫고 있기에, 본인의 문제의식을 제출함으로써 이견을 알리고, 현실 극복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

II. 몸 말

동맹파업, 각계각층의 대중운동 전진, 급격히 고조된 정세, 이러한 대담국면을 안개장국이라 규정함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후술된 투쟁 방향의 불명확화 속에서 파악되었다.

이것의 비판은 정세분석의 기본 틀인듯한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정세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역량'을 기본으로 주체적 역량이 발휘되어 투쟁대상인 객관적 역량이 역동적 과정과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의 맹정부터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사상투쟁까지 벌이는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간략한 언급만을 하였다.

주체적 역량이란 조직된 민중과 목적의식적 전위의 결합으로서 우리의 현 운동 수준을 엄격히 반영한 속에서 측정 가능하며, 또 이것은 객관적(경제적 조건과 其他의 역관계)에 규정 받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현재 상황의 대상을 요약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제기하고자 한다.

민중운동 전진의 투쟁 과오는 예전의 상황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숨겨진 결전의 강도로 뛰쳐나가기만큼 우리 뒤에서 채찍질 하는 것 같다.

그렇다.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한 사람이라면 전진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바로, 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어서고 있으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수위의 싸움으로 방향지워 '힘'으로의 결집을 꾀할 것인가 그것이다.

1. 객관적 경제·정치 상황

세계 자본주의 경제권의 체면 과정에서 남한경제에 요구된 부분을

독자투고 '즉각총선' 비판

달성하기 위해 작년 한 해 독점자본은 자본을 끌어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한 자본의 취약성은 그들의 자본회복의 방식을 부동산에 대한 투기로 하게 했고, 이러한 비생산적 부분에서 돈의 집적 결과는 민중들에게 더욱 허리띠를 졸라맨 것을 강제하였다.

이러한 몰락 고동이 민중의 진출을 낳을 수 밖에 없었고 독점자본의 수호신인 파쇼는 개방의 자본으로 투쟁을 잠재울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조순 부총리가 의지했던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등과 같이 비록 자기 살을 깎아 먹더라도 예견되는 민중 분노의 마취정제가 실패한 것으로 보아, 이미 이것을 들어올 정도의 기반조차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파쇼는 예견보다 분명히 자신의 본색을 밝혀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기회주의적 보수야당과의 청와대비밀회담이 진행되었고 독점자본에 빌붙어 있던 이들이 여기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 버렸다. 기회주의적 보수야당이 파쇼와 혈맹관계를 맺으며 등장한 '민자당'은 부로조가 계급독재의 적나라한 실체로 부상한 것이다. 경제권의 '정당화'를 성취하고 계급을 같이 하며 탄생한 민자당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부로조와 공화국을 지켜내는 것으로서의 결단인 바, 이에 노동자는 '간곡결단'으로 나아가고

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조 결성, 전노협, 전민협, 전교조, 전농연 등으로 힘을 키워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자생적 진

3. 오류는 무엇인가?

우리는 일부 운동 지도부가 내건 '즉각총선'의 요구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민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부성 때문에, 현재 민자당에 반대를 표하는 범민주권의 양적 확대를 통해 일단의 양적 결집만 하면 파쇼와 미제에 대항할 다음 단계의 싸움은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꺾의 개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양의 산술적 총합이 현재의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할 힘이라고 사고하는 편민주주의적 발상이다.

그래서 평민당 등 소부르조아 집단과 일련단결, 일민부평의 원칙으로, 정치권 내에서 민중의 이해를

뒤엎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부르조아적 태도가 현재 민중의 발목을 잡고 있을때, 명확하게 그들의 본질을 밝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한 독점자본은 위로부터 폭력적 구축의 과정이었다.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에, 남한과 같이 고도로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트만이 계급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남한야당의 명확한 '계급적 기반'을 상상한다는 것은 아날로 상상이며 그들의 역사는 물계급적 반정부투쟁에서 미세한 선조도에 의해 모조다 읊어지는 과정의 점철이었



◇지난 9일의 국민대회는 전민협행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보수야당'만 좋게 해주는 슬로건은 철회돼야 민중민주주의적 강령의 정식화 투쟁이 중요

자 하는 발걸음으로 지옥을 울리기 시작했다.

2. 주체적 역량

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중의 각성이 이루어진 점은 자신의 생활의 고통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계급적 생활에 눈뜰)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정치적 의식의 고양)이었다. 소부르조아의 운동에 휩쓸렸던 기존민중의 6월에 대한 반성이 이후 자신의 '결집된 조직'을 만들

출에 조종하지 못하는 운동권의 무능력은 '자생성에의 굴종'을 어김없이 되풀이해오고 있다.

결국 부로조아들의 결집과정에 대한 '민주대연'이나 '민중대연' 합이냐 하는 즉각적 반대호를 내걸기에 답답하다. 또한 87년 6월의 실패가 왜 그랬고 오류는 무엇이었는지,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현재의 변화된 계급 투쟁 상황에서조차 또다시 당시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담은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자고 한다. 87년 6월 소부르조아의 뒷꿈치니를 쫓아 다니며 평민당의 투쟁방향에 대한 보수부대로 학생운동을 전파시켜온 지도부의 입장이 또다시 학생운동과 남한 변혁운동의 발전에 역류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남부르조아에 대한 무지에 의해, 무당파적 연합론, 부분별한 주타방론, 무능력한 관조적 태도를

던 것이다.

평민당 역시 이러한 야당들과 마찬가지로이며 그들이 대변한다고하는 '국민'은 그들의 환상적 지지기반일 뿐이다. 남한민중의 투쟁사에서 진보적이었던 호남민중이 미래사회의 대안이 부재한 관계로 평민당을 지지한바 있으나 평주학살의 실마리와 적당히 타협종결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민중이 깨달아야 할것은 현실 정치권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라

다. 함에도 그것은 '해체 민자당'이라고 강변함으로써 해서 해체를 가져오는 것일 수 없다.

현실 우리 운동의 수준 속에서 부로조아 국가권력을 고사시키는 것은 여전히 당위적인 구호이며, 부로조아 국가권력은 우리의 의지를 도도히 비웃으며 매우 뜻밖의 부로조아 민주주의적 질서를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에 대항하는 민중 민주주의의 승리는 우리 투쟁이 보다 고도화된 방향으

로 향한다.

로 집중되어 가지 않는 이상 혁명적 정세의 창출은 불가능하며, 혁명적 정세없이 혁명이란 불가능하다.

우리 싸움의 몇 판 선도의 인자의 가두 투쟁으로써 승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배반의 투쟁을 항상 다음 싸움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 확보로 전진해 가야 한다.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라는 것은 민중들에게 매우 유해한 구호로 다가갈 것은 우리 운동의 과거가 목격히 증명하고 있다. 더이상 낡은 구호들, 그리고 알았지 보이지 않는 구호들로 민중을 유린하지 말자. 또한 민중이 미래를 스스로 열어젖힐 수 있는 물꼬를 띄워내자.

III. 맺음 말

'즉각총선' 슬로건,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 슬로건을 전 운동진영에서 철회 내걸며 매우 자신있는 일과 나름의 근거로 투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슬로건에 안락을 제기하는 너희들의 투쟁방향은 무엇이고 전국민적 공분을 자아낼 슬로건은 무엇이냐라고 또다시 비판의 요점을 포착하지 못한 문제제기를 쉬어 할 수 있다.

우리 투쟁의 전선은 민중의 민주주의적 정치투쟁이라고 규정하여 매우 도식적인 투쟁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하여 지금 현재 전민중적인 분노로 집약되는 민자당에 대한 불신을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로 정리하여 외치면 확실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생성에의 굴종의 또다른 측면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민자당은 분명 해체 되어야 한

가두어 나가서 민중들로 부터 소외당하며 외로운 외침을 외치고, 폭력분자로 낙인 찍혀 돌아오는 청년학도기 아니라, 민중의 구체적 인 고통을 함께 외치는 친근한 민중의 벗으로 우리를 가다듬자. 거 리에선 민중에 의해 보호받고 학원에서는 학우에 의해 보호받는 청년 학도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역사의 임무를 직시하자.

안미란

(문과대 철학과)

1990학년도 후기(야간) 행정대학원 학생모집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 모집학과 및 전공
 - ①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광행정, 지역개발, 언론홍보
 - ②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 ③안전관리학과: 안전관리
 - ④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 ⑤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출신학과에 관계 없음)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③행정관리과정: 가)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각급의 영관급장교 다)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라)사기업체의 임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4(목)~6.20(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23(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①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을 지급함.
 - ②우등장학금, 출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장학특전이 있음.
 - ③사회복지 전공 졸업자는 1급 복자사 자격 취득.
-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63, 직통 267-8574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경영대학원 학생모집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 ②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③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 ④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 ⑤전자계산학과: 시스템스플래이션, 전자정보처리
 - ⑥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⑦부동산학과: 부동산관리
 - 지원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 대학졸업자 및 1990년 8월 졸업예정자. (비정상제도 응시할 수 있음)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③관리자과정: 가)회사·사회단체의 간부 및 대표 나)노조간부 다)군고급장교 라)정부 각기관 5급이상 공무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5.28(월)~6.5(화)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9(토) 14:00 본 경영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 ②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전
 - ①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 ②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③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노조간부(노사관리학과에 한함)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기타 상세한 것은 본 경영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73, 직통 267-8140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교육대학원 학생모집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경영전공
 - ②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금)~6.8(금)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16(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전공, 교적교양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실기시험 포함
 - ②연구과정: 전형(필기부과)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활동실적(팝아트등) 포함, 작품 20호이상 2점 제출
 - 특전
 - ①공·사립 교직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 ②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전공)에 지망하는 초·중·고 교장·교감·장학사는 특별 전형함.
-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2283, 직통 279-8052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중적 논의 활성화로 학생회체계 정비할 때

민자당 창당의 산파역 미국반대 투쟁이 중요

학생회간부 단결은 대중적 단결을 통해 이뤄져

I. 글을 시작하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현재를 어떻게 풀것이며 어떻게 써나갈것인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 1월22일의 이른바 3당야합, 4·3보결선거, 현대중공업노동자의 대규모파업투쟁과 KES사원들의 방승자주화투쟁, 5·9 반민자당 기동투쟁, 5·19 전대협광주총회와 20일의 국민대회 등 높아지는 투쟁의 흐름이 우리에게 특별히 혼란을 줄만큼 복잡하고 미묘할 것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투쟁은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지배 음모를 좀더 정확히 알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세를 바라보는 동학대의 관점에서 몇가지 잘못된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생회체계의 88년 투쟁의 봉화를 높이 올렸던 학원자주화투쟁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양상으로까지 변화하고 있다.

“통일단결”이라는 슬로건은 이미 불건조한 토대 위에서 통일단결을 대중적 수준에서 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경향은 과단위학생회까지 파고들어 서로의 단결과 일치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학생회간부들의 차이점만을 강조하는 종파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들은 과학적 정세관과 투쟁 속에서 단련되어가는 모습을 보길 원하며 지도의 내용을 받으며 투쟁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단위사업보다는 오히려 상층중심의 단결(?)과 그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는 편향만이 난무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높은 결의수준과 대중에 근거하는 생활방식보다는 몇몇 있는 정치투쟁만으로는 대결의 지속에 빠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재 동학대의 수준인 것이다.

이들에서는 과학적 정세관을 갖는데 있어서는 안될 몇가지와 앞으로의 통일단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몸말

1. 무엇이 과학인가?

과학적이거나 정세관은 비과학적인 투쟁과 그를 통한 민족민주운동의 후퇴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정세관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주체적 역량을 기본으로 주체적 역량이 발동되어 투쟁대상인 적과 격돌하는 역동적과정과 그 결과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주체적 역량이라 함은 당연히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정도과 그에 걸맞은 지도조직의 역량이며 당연히 객관적정세의 규정을 받는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은 교양되어가는 대중의 자주성에 따라 현실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정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자당체계의 본질과 그들의 지배전략, 그리고 우리들의 역량을 살펴보자.

2. 보다 반의세자주화의 관점에

이승만단독정부의 수립, 4·19 이후의 장면정권, 5·16쿠데타이후 군사정권, 유신체제, 5·17쿠데타와 전두환정권, 이민주구상, 4·13과 6·29, 민주화출현이라는 신식민주체의 권력체연이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권력체연이속에서 모순의 격화와 대중들의 전면적 진출, 체제위기의 미국과 메판체력의 이익보존을 위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3당합당을 통한 미국의 의도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로, 부르조아민주주의의 형식까지 무시한 폭력일변도의 탄압을 통해서서 더이상 체제유지가 힘들수준이 높아졌다는 것과 둘째로, 80년대 본격화된 미국의 새로운 제3세계정책, 반혁명전향인 지강도전략의 본격화로 인해 예정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한국정권의 본격적 추진과 관련된 것이다. 정권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성격을 숨기기 위해 진행되었던 북방정책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 유레 U.N총회에서 단독가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영삼까지 포함, 정치권에서의 이견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때 민자당의 본질은 명확히 부르조아 일변도의 독점적 지배에서 부르조아체제의 공동지배

에 의한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보수대연합이 아닌 친미파소아합인것이다.

민자당의 이러한 본질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바가 크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적뿐이 아닌 그배후의 적까지 포괄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우의 방임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꾀하고 경제적인 수직분업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음모를 알수 있는 것이 87년도의 6월항쟁에서 얻었던 교훈, 즉 지주적인 관점을 잃고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으로 일으켜 내지 못할때 미국과 독재정권은 얼마든지 지배기술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주만이 민주였다”는 교훈은 더 이상 교훈으로서가 아닌 수업개방반대투쟁, 주한미군철수, 광주학살개입등의 구체적인 구호로써 외쳐져야 하는 것이다.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전락할때 그것은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닌 대중의 이반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미국의 지배전략과 민자당의 폭력적인 탄압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점점 더 강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운동의 수준은 정세를 이끌고 갈 힘을 갖고 있지 못한데, 그것은 전국적인 투쟁과 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한 투쟁으로 보라, 성장할수 있다.

3. 동학의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재 동학대에는 투쟁방향과 정

세를 둘러싼 수많은 이견과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학생회강화와 대중조직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층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진정한 지도간부들의 단결은 학생대중의 대중적 논의에 근거한 통일단결로서 가능하다. 그랬을때 현재 동학은 학생중회한 개회하지 못할정도로 대중적 논의를 하나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학과와 단대학생회의 통일적 연관이 단결전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학은 총학대로, 단대학생회는 단대학생회대로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대중적 논의의 부재에서 찾을수 밖에 없다.

거기서 자주의 관점을 전지한 학자부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학자부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의 투쟁이 아니다. 남한사회의 신식민주적 교육구조속에서 파생될수 밖에 없었던 학원의 권력중추으로서부터 자주화투쟁이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학자부의 실종도 학생회구조의 대중적 무기력함에서 찾아야 한다.

4. 통일단결은 불가능한가

통일단결된 간부와 폭발적인 대중투쟁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통일단결된 지도부는 대중적인 토론과 실천속에서만이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소비적인 논쟁만이, 대자본논쟁만이 대중의식화과업인 양 하는 자세는 명백히 지양되어야



◇지난19일 광주총회 투쟁서 “해체 민자당” “미제축출”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학생들

한단. 하나의 일정, 하나의 집회라도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보라.

그리고, 학우대중들의 무엇을 바라고 어떤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라.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학생회사업의 시작이다. 그속에서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그들을 조직화시켜내는 것이 진정한 학생회사업인 것이다.

지도조직과 지도내용을 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도내용은 지도받는사람의 실정과 수준이 전체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학생회의 대중적 토대확보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학자부의 실종도 학생회구조의 대중적 무기력함에서 찾아야 한다.

5. 담면투쟁의 방향

지난 19, 20일의 광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쓸데없었던 것,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불식되어야 한다. 성파는 계속하고 문제점은 혁신하면 되는 것이다. 광주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반미의 주장을 대중화시켜낼수 있었다. 서울로 올라와서의 투쟁은 문제가

있었지만 광주투쟁에서의 반미투쟁은 나름대로는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반미투쟁도 민중들의 구체적 정서속에서 녹아들었다가 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노태우 피진 즉각총선”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상당부분 왜곡되어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각총선”은 전면화되어가야하는 대중적인 참여기회확대와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유효성은 계속 가지며 이것은 6월투쟁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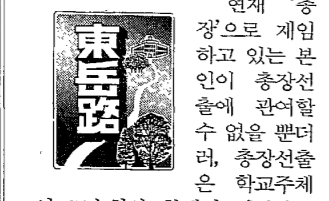
현재 동학은 여러가지 혼란함을 가지고 있다. 정세관으로부터 투쟁방향에 이르기까지 일치하는것은 별로 없는것 같이 보이기 일쑤이다.

그러나, 상층간부의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적인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한다.

대중들은 단위에서부터 논의하고 실천되는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대중적으로 뿌리박히는 학생회구조, 그것이 바로 자주의 관점이며 승리의 관점이다.

6월투쟁은 바로 거기서 시작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이견이 있다면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그렇지 않음에도 어떤 투쟁이든 대중들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투쟁으로서의 한계점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부)



“현재 ‘총정’으로 제입하고 있는 본인이 총정선출에 관여할수 없을 뿐더러, 총정선출은 학교주체

인 교수회와 학생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한 날씨가었던 지난 25일 지역개발대학원 회의실에서 1시간여동안 진행된 총정서리와 학생의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서서리는 줄곧 자신이 ‘총정’임을 강조했다.

신청서서리의 20여분에 걸친 인사말 후 짧은 시간동안 총정서리 회장 백대진(영문4)교을 비롯한 학자부위원장, 각 단장 등 10여명의 학생들은 사회부 지학과 교수총원, 미술학과와 미대승격등을 1학기에도 몇번이나 제기된 현안문제제기에 그쳤다.

상층교섭 무위로

각 단대장들이 작성한 단대별 요구사항에 대해 총정서리를 비롯한 학교측은 “사립학교법의 통과로 총정의 예산-재정권이 약화돼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화답할 수가 없다”며 “계랑을 거듭한 예기로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논의가 활성화될 즈음에 신청서서리는 “학생들과 이렇게 계속 토론하고 싶으나 바쁜 비행기 시간과 일때문에 자리를 마련해줬다”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는 공허한 말만을 남겨둔 채 오전 11시20분경 간담회를 끝냈다.

짧은 간담회 도중 시종일관 ‘미소’로 자리를 지킨 백정학생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이제 간담회도 마치고 ‘책임’ 미루기, ‘내용’이 회의’를 다시 한번 더한자리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권학자부위원장은 “학교측과의 회의를 통한 교섭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담보해 낼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함을 한번 더 절실히 깨달았다”며 학생회실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바라던 총정서리와 면담이 이뤄졌는데 면담이상의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학생측이 담보해 낼 성과가 고작 ‘투쟁의 다짐’ 뿐이냐”며 “그 다짐이 이후 운동에서 얼마나 활성화 될런지”라는 어느 학생의 말에서 경주캠퍼스 학생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이형숙기자)

학술정보

언론운동 삼포지음

중앙대학교대학원 신문학과 중앙언론연구소는 한국 언론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하여 “80년대 한국사학 언론운동의 평가와 90년대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오는 31일 오후1시 중앙대학교 학생관 3층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제1주제:80년대 한국사학언론운동의 전개와 90년대 전망 발표자:김형석(중대) 토론자:김성호(성대) 김승수(한대) 사회:김원희 제2주제:80년대 민족민주언론의 현황과 향후과제 발표자:정승준(민원협) 토론자:김동진(건대) 한은경(성대) 사회:임동욱(중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학

‘현대사회의 정치경제학’은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제체제인인 소련파학이카메이 경제연구소가 아발린 교수를 중심으로 소련사회과학이카데미의 체계적 연속강의에 기초한 집담회 노작이다. 이 책은 현재 소련사회의 전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의 발본적·혁명적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사회주의경제학의 이론적개념의 최초의 시도인 동시에 그 연구된 서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본격적인 정치경제학교과서이다.

북한의 한국사 인식

90년대의 통일된 민족시수립을 위한 북한의 역사인식에 대한 연구서가 나왔다. ‘북한의 한국사 인식’은 북한에서 우리역사의 중요함을 절감하고 생각하는 주체들을 추출하여 이를 해당부본 전공자가 집필했다. 1권은 원시시대에서 19세기 중반까지로 전근대부분이며, 2권은 19세기 중반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근현대부분이다. 북한역사학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는 남한역사학의 전면적인 재조명에도, 그리하여 통일된 민족시수립에 하나의 출발선이 되는 것으로 이 책의 의의가 바로 그것에 있다. (한길사·각권 6천7백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정보산업대학원 학생모집

본교 정보산업대학원은 컴퓨터, 통신, 언론의 융합과 확산이 창출해가고 있는 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야간 특수대학원입니다.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정보통신학과: 전자계산전공, 정보관리전공
 -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편집전공
 - ③산업개발학과: 정보통신전공, 산업개발전공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대학 졸업자 및 90년도 8월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 ③관리자과정: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6.11(월)~6.20(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6.23(토) 14:00분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 ②연구 및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전
 - ①현직인원인에 대하여 특별우대 장학금 지급함.
 - ②공무원, 군인, 국가산업체 종전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 ③재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 ④과과지원은 출신대학 전공학과의 관계없음. (본대학원 졸업생은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교)3292, 직통 277-6511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1990학년도 후기(야간) 지역개발대학원 학생모집 <경주캠퍼스>

- 모집과정 및 전공:
 - ①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②모집학과: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대학 졸업자 및 90년도 8월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 ③관리자과정: ①경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 ②각 군의 영관급 장교
 - ③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 ④공공기관(단체)의 간부
- 원서교부 및 접수: 1990년 6월14일(목)~6월21일(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90년 6월23일(토) 오후2시 본대학원(진흥관)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험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②공무원 전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을 지급함

③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등 각종 장학특전이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에 문의바랍니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전화: (0561)2-0131~6(교)263, 직통(0561)41-4131

동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학군사관 후보생모집 (R.O.T.C.)

- 모집인원: 0000명
- 지원자격:
 - ①90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 ②'69. 1. 1~'73. 3. 1출생자(18세~22세 미만)
 - ③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90. 5. 1~6. 10(학군단본부)
- 구비서류:

지원서접수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 2부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진(4×5cm) 2매
●사진(4×5cm) 1매	
- 선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 합격자 발표: '90년 12월22일
- 특전:
 - ①무시험 선발
 - ②소위 임관, 중위 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 ③의무 복무 기간: 2년3개월(장교중 최단기)
 - ④회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⑤전역시 직급보도 실시
 - ⑥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문의처: 각 대학 학군단 본부

이 땅에서 학자투를 왜 해야만 하는가

자주화된 학원건설 올해로 3년을 되돌아 본다

I. 들어가는 말

90학년도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 본교의 학자투는 방향을 잃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른채 헤매고 있다.

그나마 1학년 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등록금 환불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성과물이 없는 막연한 상태이다.

지난해 총장선거 무산이후 제22대 총학은 아직껏 별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

학자투의 성격이 정치적인데다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차이에 대해 이데올로기 대립을 유발할 때를 지났다고 본다.

그러나 제22대 총학은 선거기간 중 '과학적 학자투' 내안이라는 학자투를 부르짖었다. 그럼에도 현재 그결과 88년 학자투 원년이라 할 수 있는 학자투와해적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강의실 환경개선, 화장실 증설, 도서관화중 등의 복지사업이건 중 요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내 복지사업들이 학자투의 주 슬로건으로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자투의 주 슬로건은 '자주화'가 갖는 의미인 것이다.

지배권력으로부터의 학원의 자주화, 온갖 부당·부패로부터의 자주화, 학원의 각 주체가 주인되는 의식을 갖는 자주화인 것이다.

물론 지난해 학자투의 실패로 많은 학생들이 "학자투 2년동안 성과물이 없다"는 피해의식이 민연되어 있으며 학생의 간부들 또한 학자투 수행의 당위성만을 인식할뿐 실제 대중간부로서의 계획성과 책임있는 실천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행되어야 할 학자투의 과제는 크게 민주화선거-재단혁신-학원의 자주화라는 대명제로 요약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단위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자투가 전개되어야 하며 학자투 승리의 관점을 학생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

II. 6월이후 학자투의 방향

지난해 노골적으로 자행된 학생 간부들의 대대적 구속은 학자투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자연히 학생회는 결집력이 흐트러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올해 학자투수행의 객관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원의 자주화를 근본적으로

로 와해시킬수 있는 악법으로써 올해 가장 중요한 학자투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있다.

또한 개정사립학교법의 내용중 제단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것은 본교에 있어서 올해 총장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다행히 교수회에서는 오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지난해 선거과정과 제도를 중심으로 올해 민중선거의 아웃라인을 잡아본다.

1. 재단혁신 투쟁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단순히 돈 몇푼 들어오는 한시적 재단투쟁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88년도 학자투때 매년 5억이상의 재단전입금 확보를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 알수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입금확보를 위한 구조적 방안 마련으로 「재단전입금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의 구성은 재단, 교수, 학생, 학교당국 4자로 하며 재단이사회의 지속의 최고 심의기구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의 업무는 크게 △재단전입금 확보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마련 △재단재산의 현황을 보고 받고 수익사업체계의 방안을 논의 △수익사업 내역과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 △불합리한 재단정관을 각 주체의 합의에 따라 수정할 것 등으로 불수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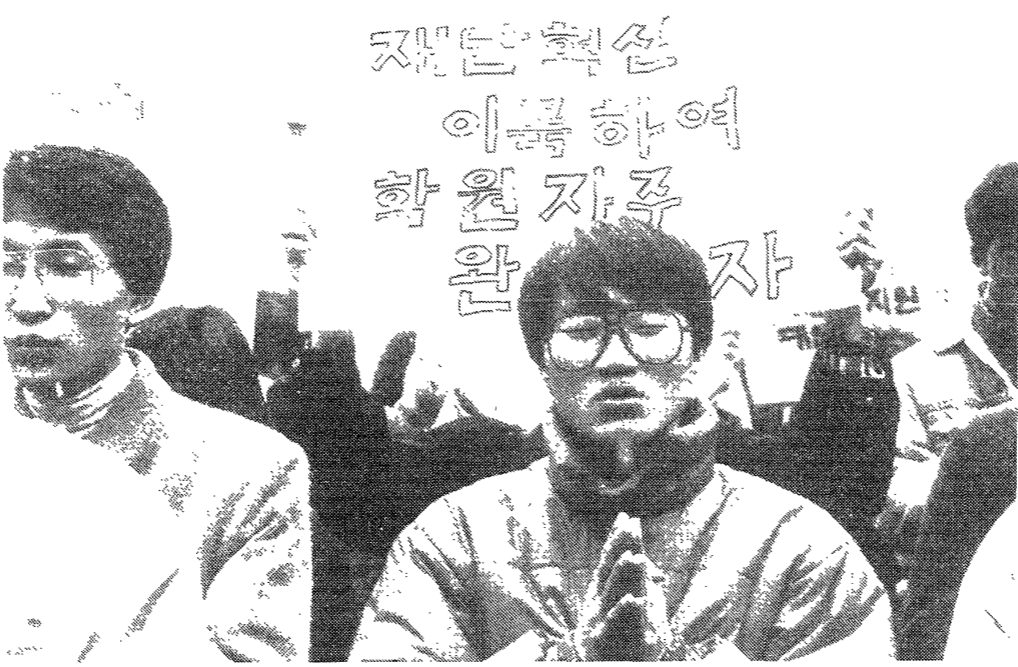
아울러 교수와 직원에 대한 재단의 직접적인 지배와 사학제단의 영리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부여한 재단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재단혁신투쟁의 중요한 과제이자 학자투 완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재단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법

본교는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타대학과는 성격이 다른 재단이 있고 그 위에 또 종단이 존재하고 있다.

7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종단파들은 본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다. 지난해 부정입학사건도 종관사율으로 인해 야기되었음은 이제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재단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재단이사회의 전면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해 부정입학의 장본인인 황진경, 이지관스님이 계



학자투 회체계 와해로 위기 직면 '재단강화' 개정사립학교법 걸림돌 민주적 총장선거 완수가 '관건'

속 이사진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이지관 스님은 현재 평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눌러앉아 있는 모순을 안고있다.

또한 사외의 총무위원장의 임기가 7월로 끝나고 본교이사가 된 현재, 앞으로 종건을 위한 임무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단은 학교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로도 지속적인 전입금 확보를 해야 하며 학자투를 교수회와 학교당국에 위임해야 한다.

3. 민주총장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총장을 추대·선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대표자를 선출하는 차원보다 본교의 제반 문제들을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수행할 우리의 대표를 뽑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있는 복지사단의 문제, 행정의 민주화, 교수들의 주체적 고양, 학원의 자주화는 소신있고 민주적 소양과 학력을 갖춘 민주총장이 해결할수 있는 근본

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총장 선출없이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는 요원할 뿐이며 재단혁신의 과제 또한 공멸될 수 있는 것이다.

4. 이후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2학기 등록금 책정을 방학전에 결정할수 있도록 학생회는 학교당국과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 인상된 등록금의 올바른 타당성 여부를 같이 고민하고 만약 무원칙한 인상분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학교당국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상분이 학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1학기가 끝나는 6월말경까지 민중선거를 위한 학생, 교수, 직원 3자연석회의를 개최, 지난해의 오류들을 반성하고 긍정적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선거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보다는 교수주체의 민주적 소양이

더욱 중요함을 뼈저리게 느낀바, 학생회는 민주교수들의 투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II. 민주총장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지난해 본교는 설립이래 최초의 교수직선 총장선출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총장 선출투쟁의 반성적 평가는 총장선출투쟁에 제지단체 구성원의 적극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출안 마련에 맞춰졌어야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민주총장 선출투쟁은 실패했으며 올해 민중선거는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는 오류는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교수회의 보수성 △제지단체의 정확한 상황인식 부족 △학원 각 주체들간 집약된 의견의 총화로써 단일안을 창출해내지 못했던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지난해 제21대 총학은 7월6일, 8월8일 두차례에 걸쳐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학생회측 선거제도의 골격은 △입후보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 △후보추천을 직원이나 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후보선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등이었다.

당시 고려대 세중대, 연세대등이 총장선거를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에서 학생회의 선거제도는 상당히 과학적인 것으로써 남한사회의 대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민주적 제도였다.

직원노조도 계속 준비를 하는 속에서 2학기 들어 총장선출제도 마련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돌입한다.

한편 총장선거의 주체인 교수회는 그러나 좀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9월 25일 '총장후보 선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게된다. 당시 교수회는 교향선출방식(일명 무작위선출방식)과 후보추천방식 2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결국 교수·학생·직원 3자대표간 대화를 거쳐 선거제도안을 마련했

본교의 경우 제지단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할수 있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절실하다.

IV. 남은것은 학자투 승리의 관점뿐이다

하계방학중으로 예상되는 민중선거와 2학기 등록금 투쟁등을 한해 완수해야 할 학자투의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제22대 총학 출범이후 올바른 관점없는 즉자적인 투쟁의 연속은 학자투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학원내의 여러문제가 학생회 사업속에서 고민된다면 사안에 따라 설명서와 집회는 늘 상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이후 두달이 가깝도록 학자투에 대한 총학의 지도력과 각 단체별 결집력은 그 어느때보다 취약하다는 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민중선거를 통한 재단혁신, 인적혁신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한다.

아울러 올해 학자투는 좀더 성숙하게 애교심을 바탕으로 주위의 제반연관들을 고민하여 수행해가야 한다. 무원칙한 점거농성이라든가 일방적인 적대적 관계설정등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학교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애교심을 바탕으로 이후 학자투를 이끌고 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88-89년에 발표했던 설명서를 위한 정리해본다. 지금 22대 총학집행부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학자투에 애정을 쏟아부을 때이다. (이만섭 記者)

88년 1학기

- ◇5월11일 등록금반전을 위한 설명서
- ◇5월30일 학원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방교육원배투쟁 선언문
- ◇6월7일 사회과학 학사일정 전면거부 설명서

88년 2학기

- ◇8월 24일 휴교령 결사반대 결의문
- ◇8월26일 우리는 왜 단식농성에 돌입할 수 밖에 없는가(총학 운영위원회)
- ◇8월27일 전제교수회의 총회장에 선출된 吳國根교수에 대한 영문학과의 결의
- ◇8월30일 단식농성 5일째를 맞으며
- ◇8월31일 8개월 파기한 교수회 전면거부및 휴교령 결사반대 투쟁결의문
- ◇9월12일 학교당국의 설명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9월15일 학자투투쟁의 투쟁선언문
- ◇9월16일 학원자주화의 완수를 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기밀수반은 없다-농성에 돌입하며
- ◇10월16일 설명서-8개월 사수의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돼.....
모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옳으로 결의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로 걸으라는
어미계의 가르침—
우리 함께 생각해볼 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은
어른들의 솔선수범입니다.



(6면에서 이어짐)

◇10월18일
우리는 총장실 점거농성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가?
◇10월24일
학교당국의 기만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분개한다(부당징계)
◇11월1일
동약의 교수님께 드리는 글(부당징계)
◇11월18일
최후통첩 투쟁선언-동약의 학원자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1만 학우에게-
◇11월28일
동독류금 납입 거부를 제안합니다.
◇11월29일
교수님께 드리는 글(교수회 개편)

89년 1학기

◇1월25일
동독류금 인상에 대한 학자투위 투쟁결의
◇2월8일
7. 89년 신규교수 초빙에 있어 몇몇 학과 교수님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에 경고한다.

◇2월15일
부모님께 드리는 글
◇3월10일
동독류금 동결 철회의 언덕을 넘어 재학후의 구원의 봉우리로 힘차게 달려가자! 자주동약의 1만7천 학우여!!
◇4월3일
학원자주 완수를 위한 투쟁결의문(재학후위)
◇4월10일
재단혁신 투쟁으로 음악이어! 멀쩡 일어서자!
◇4월14일
동독류금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재단투쟁의 전선으로 힘찬 진군을 하는 1학년 학우여!!
◇5월2일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하며(1학년 자치회의위)
◇7월28일
동독류금 반환을 위한 투쟁을 위한 인사조치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

89년 2학기

◇8월1일
민중 선출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건의
◇8월16일
다가을 민중선출은 동약

인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수대의원회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9월3일
교수님께 드리는 글-동독류금 반환과 학문공동체 건설을 염원하며-
◇9월5일
7. 동국의 자주적 혁신을 위한 공대위 발족선언문
◇9월21일
7. 더이상 反학자투 세력을 믿을 수 없다.
7. 학자투에 대한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9월26일
부정비리 척결을 사대수습을 단호히 배격하며, 흡수 총장선출을 회색하는 교수사회의 내부의 일부 反학자투적 존재를 가차없는 투쟁을 선언한다.
◇9월29일
민주 광장을 뿌려줄 수만 있다면 어김없이 바실결사훈-단식투쟁에 돌입하며-
◇10월16일
7. 학자투 완수를 위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제작중지', '기자구속' 등 여러형태

I. 89년 이후 드러난 언론탄압

지난 4월27, 28일 양일간 유성광호출판사에서 개최된 '전국 주간교수협의회(이하 전주협) 춘계대차에서는 대학신문에 실리는 이념성기사에 대해 평등을 대고 사법기관과 협조하여 '총장·주간교수경고, 집필자구속'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신문을 극히 편향적인 좌경운동권의 선전지로 매도하여 탄압하려는 이 발표는 일제에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해준다는 미명아래 발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학생기자에게 전가하고, 동독류금의 일부인 대학신문출판권대차제를 제거하려 했다. 즉 대학신문을 학교신문과 학생신문으로 분리하여 단순한 학교홍보지화하려는 음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주협세미나발표를 통해 보여진 탄압의 노출화는 현 대중공영, KBS과업등을 계기로 계속되는 반자당 투쟁과 민중생존투쟁의 형성이 5월의 투쟁으로 확산될 것에 대한 당국의 위기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II. 구체화된 대학 언론탄압의 양상

전국대학신문 주간교수협의의 춘계대차에서 발표된 주내용을 서정해, 원광대, 고대신문 주간교수의 기조발표로 '대학신문의 실상' '대학신문의 개선방안' '대학신문의 동향' '대학신문기사의 체제문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의 대학신문발행의 체제, 대학신문의 광고문제 등과는 달리 '대학신문이 운동권리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제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주요축점을 둔 것이다. '대학신문의 실상'이라는 주제발표에 따르면 "각대학으로부터 점수분석한 4백40개 질문에 실린 긍정적 평가가 10%에 불과하고 부정적 평가가 90%에 달하는 것을 추측하여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상적인 대학신문의 참모습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국 과격학생들의 편향된 정치관과 사국관등을 대변하고 있는 인

최근 노골화 되고 있는 대학신문 탄압사례

강력히 지적·시정하는 것 등이다. 실제로 국제대의 경우 작년 11월에 국제대 교수5명으로 구성된 '언론·출판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구성직후 위원회는 국제대신문 92호의 제작과정에 집결을 강화했으며, 올해 발간예정인 국제대교지 '국제'에 사전검열을 통한 내용상제, 교수 논문게제등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때 제작중지를 지시할것을 위협하며 문제된 글이 삭제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간교수와의 마찰에 대해서 학교측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총학생회 기금출입부를 이용하여 신문발행행위 하고 있다. 특히 국제대의 성원학원이사장 감성민씨는 예산에 국제신문을 위한 예산을 100%에서 정치권력유착된 지위에서 정권의 지시없이도 자체적으로 학보를 비롯한 학내의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제어하고 있다.

III. 대학신문탄압에 대한 대처

현사회와 결코 유리될 수 없는 대학신문은 어떤 현실을 바로 인식해 내고 왜곡된 현실에 비판을 가하여 역사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청년학생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수행을 진언해 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사의 전달과 학교구성원전체의 의사와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정집단의 간섭에서 벗어난 언론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협세미나에 발표된 문교부의 방침과 편집자율권-예산자율권의 침해를 통한 대학신문탄압을 오히려 구체적 형태로 노골화되었다. 여기저기 간파해야 할 것은 당국의 대학신문탄압양상이 불리력을 동원한 직접탄압

"예산없다" 식으로 돈줄 끊는 학교도 서대기런, 탄압맞서 연대집회 상정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들로 구성된 편집표는 아래와 같다. 이 편집표에 의하면 2-4절은 주간교수경고, 4-6절은 총학장경고, 6-9절은 편집장구속이라는 방침하에 '대학신문 감시위원회'에서 분석하고, 감사위원회는 문교부, 공보처, 법무부, 치안본부관계자들이 대학신문발행권을 구성하여 편집표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편집표에 의거하여 문제가 된 기사들은 "정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예견된 시국관, 공산주의이론만 체계적으로, 계급투쟁론, 반민감정고위, 예술훈신"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대학신문의 위헌적 위헌"이다. 이것의 기능은 교수와 학생이 편집권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학생기자에게 인입과 있는 수습자선발권을 운동권학생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가 적극 개입하며, 광고계제 및 광고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가능, 외부기자의 글을

만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홍보팀이 꾸러지고 언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간행물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운동, 농민문제에 대한 글에 대한 주간교수의 간섭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학생기자, 필자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드러난 또다른 형태는 주간교수에 의한 원고 검열과 무기한 수정·삭제등의 편집자율권침해이다.

87년 이후 정부에 의한 검열이나 배포금지야 마찰을 감추면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발행지연, 제작중단사태가 증가했다.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주간교수화된 편집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제작기구를 결의하고 지난 5월16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고대신문이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5월5일자 사설(KBS, 현충절 특집단문을 규탄한다)에 "KBS 노조와 현충노조가 국민을 불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

대학신문 탄압사례

대역서 학교측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총학생회 기금출입부를 이용하여 신문발행행위 하고 있다. 특히 국제대의 성원학원이사장 감성민씨는 예산에 국제신문을 위한 예산을 100%에서 정치권력유착된 지위에서 정권의 지시없이도 자체적으로 학보를 비롯한 학내의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제어하고 있다.

대학신문탄압에 대한 대처

현사회와 결코 유리될 수 없는 대학신문은 어떤 현실을 바로 인식해 내고 왜곡된 현실에 비판을 가하여 역사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청년학생의 올바른 지위와 역할수행을 진언해 내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사의 전달과 학교구성원전체의 의사와 여론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정집단의 간섭에서 벗어난 언론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협세미나에 발표된 문교부의 방침과 편집자율권-예산자율권의 침해를 통한 대학신문탄압을 오히려 구체적 형태로 노골화되었다. 여기저기 간파해야 할 것은 당국의 대학신문탄압양상이 불리력을 동원한 직접탄압

“예산없다” 식으로 돈줄 끊는 학교도 서대기런, 탄압맞서 연대집회 상정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들로 구성된 편집표는 아래와 같다. 이 편집표에 의하면 2-4절은 주간교수경고, 4-6절은 총학장경고, 6-9절은 편집장구속이라는 방침하에 '대학신문 감시위원회'에서 분석하고, 감사위원회는 문교부, 공보처, 법무부, 치안본부관계자들이 대학신문발행권을 구성하여 편집표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편집표에 의거하여 문제가 된 기사들은 "정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예견된 시국관, 공산주의이론만 체계적으로, 계급투쟁론, 반민감정고위, 예술훈신"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대학신문의 위헌적 위헌"이다. 이것의 기능은 교수와 학생이 편집권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고, 학생기자에게 인입과 있는 수습자선발권을 운동권학생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가 적극 개입하며, 광고계제 및 광고비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가능, 외부기자의 글을

만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홍보팀이 꾸러지고 언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간행물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운동, 농민문제에 대한 글에 대한 주간교수의 간섭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학생기자, 필자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드러난 또다른 형태는 주간교수에 의한 원고 검열과 무기한 수정·삭제등의 편집자율권침해이다.

87년 이후 정부에 의한 검열이나 배포금지야 마찰을 감추면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발행지연, 제작중단사태가 증가했다.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주간교수화된 편집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제작기구를 결의하고 지난 5월16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고대신문이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5월5일자 사설(KBS, 현충절 특집단문을 규탄한다)에 "KBS 노조와 현충노조가 국민을 불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

만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홍보팀이 꾸러지고 언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간행물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운동, 농민문제에 대한 글에 대한 주간교수의 간섭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학생기자, 필자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드러난 또다른 형태는 주간교수에 의한 원고 검열과 무기한 수정·삭제등의 편집자율권침해이다.

87년 이후 정부에 의한 검열이나 배포금지야 마찰을 감추면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발행지연, 제작중단사태가 증가했다.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주간교수화된 편집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제작기구를 결의하고 지난 5월16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고대신문이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5월5일자 사설(KBS, 현충절 특집단문을 규탄한다)에 "KBS 노조와 현충노조가 국민을 불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

만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기획홍보팀이 꾸러지고 언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간행물을 심의하고,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운동, 농민문제에 대한 글에 대한 주간교수의 간섭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학생기자, 필자의 구속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과 함께 드러난 또다른 형태는 주간교수에 의한 원고 검열과 무기한 수정·삭제등의 편집자율권침해이다.

87년 이후 정부에 의한 검열이나 배포금지야 마찰을 감추면서 주간교수와의 마찰로 인한 발행지연, 제작중단사태가 증가했다. 주간교수와의 마찰이 가장 심각한 곳은 주간교수화된 편집자율권보장을 요구하며 제작기구를 결의하고 지난 5월16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고대신문이다.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5월5일자 사설(KBS, 현충절 특집단문을 규탄한다)에 "KBS 노조와 현충노조가 국민을 불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

'민중준비에 총력 기울일다'

서울교수회가 총장추보선출 후보추천에 관한 규정개정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내일(31일)로 잡고있고 강주교수회도 오는(30일) 임시총회를 개최, 총장추보선출에 관해 의견을 모으

▲총장·이사장실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후 투쟁 방향은...
=좌편 민중과 관련된 점거농성의 의미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고립·분산적인 학자투쟁을

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재단혁신에 대한 입장은...
=재단직임금 확보가 가장 주요한 사안일 것이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재단의 학원에 대한 부담감 간섭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철폐를 확실하게 민중에서 있을 재단간섭을 막겠다.
=학생회에서의 위정된 사안이 단대, 마로 집행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학생회내에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졌던 모습은 총파주의적 이

인터뷰



권오철 (총학생회장·회학4)

다. 총학 학자투위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법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교수·학생·직원들과 함께 재단혁신과 민중에 관한 토론을 벌인다. 동아는 '민주총장선출'을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1학기 학자투를 평가하고 민중에 대한 학생회의 대응방안을 총학생회장 권오철(회학4)을 만나 들어본다.

▲올 1학기 학자투의 성과를 본다면...
=성과라고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없고 입증한 현실이 요구하는 정치투쟁에 학자투가 매달린 면이 없지 않다. 또 기자의 학자투 성과를 이어지지 못하므로 많은 학우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총학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자투가 있는데...
=대학원학생회, 직원노조등과 논의를 계속해 왔고 30일 공개토론회를 학내내에 전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

과, 단대학생회에 결합시켜 이후 투쟁의 중심점을 민중선거에 맞출 것이다.
▲선거공약에 제시됐던 '민중추대위'의 위상은...
=민중의 원칙이 교수회와 학생·직원의 신임권 보장이라 할때 '민중추대위'의 역할은 이것들을 보장해내는 것이다.
▲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민중추대학생위원회에서 각과, 단대투쟁을 선정, 제도마련, 정책입안을 내려 민중제도의 마련을 위한 교수·학생·직원의 3자연석회

공개토론회 통해 학내주체 연대 학생·직원에게 신임권 보장돼야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만이라도 노력하겠다.
▲31일 교수총회에 예상되는 것과 교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임시총회에서 선거사안과 선출방식이 나올 것 같은데 각과와 같은 기관적이거나 음모적인 선출방식은 없어야 되겠다. 총학도 자체 민중제도의 마련, 교수회와 계속 직원 모두가 동약의 입증한 현실을 인식하고 배후의를 극복, 민중 승리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남철우기자)

*서점에서 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720)9842-3

사전없이 原作을 즐기는 동안 독해력이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영어의 기본은 읽기! 독해력, 독해력을 쌓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좋은 내용의 좋은 문장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할기같은 명작만을 잘 골라놓은 『영한 대역문고 100권』...
동광한 감동과 함께 찾아오는 영어의 새로운 즐거움이 독해력 증진에 물론, TOEFL·취적영어시험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권 반역의 열매 ② 제2권 반역의 열매 ③ 제3권 반역의 열매 ④ 제4권 반역의 열매 ⑤ 제5권 반역의 열매 ⑥ 제6권 반역의 열매 ⑦ 제7권 반역의 열매 ⑧ 제8권 반역의 열매 ⑨ 제9권 반역의 열매 ⑩ 제10권 반역의 열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⑪ 제11권 반역의 열매 ⑫ 제12권 반역의 열매 ⑬ 제13권 반역의 열매 ⑭ 제14권 반역의 열매 ⑮ 제15권 반역의 열매 ⑯ 제16권 반역의 열매 ⑰ 제17권 반역의 열매 ⑱ 제18권 반역의 열매 ⑲ 제19권 반역의 열매 ⑳ 제20권 반역의 열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⑳ 제21권 반역의 열매 ㉑ 제22권 반역의 열매 ㉒ 제23권 반역의 열매 ㉓ 제24권 반역의 열매 ㉔ 제25권 반역의 열매 ㉕ 제26권 반역의 열매 ㉖ 제27권 반역의 열매 ㉗ 제28권 반역의 열매 ㉘ 제29권 반역의 열매 ㉙ 제30권 반역의 열매
---	--	--

총 100권 4-6판 2,300원

가장보람차고알찬실계

여름방학 패션 특강

1차: 6월 18일~8월 18일(9주)
2차: 6월 25일~8월 25일(9주)

1990년 여름방학 -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야말로 정말 보람차고 알찬 설계가 아닌가. 패션에 대한 정열과 장래의 확신, 직업이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 - 올해의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Fashion Design, Illustration, Pattern making, 등 실무교육과 함께 전문경영인의 상품기획에서 판매까지의 특별강좌가 마련된 『국제복장학원 여름방학 특강』을 설계해 보세요.

개학 후 뚜렷한 실력과 패션디자이너의 기질이 펼쳐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패션교육 - 국제복장학원을 선택하십시오.

국제복장학원

총무명동 / 775-3541
종로코아 / 733-7666-7
강남구 신사동 / 546-7321-2
영등포구 영등포 / 678-9491-2

좀더 나은 사회 이루려는 마음 한자리에

생활문화 한마당을 찾아

수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기자는 지난 26일 민족생활문화연구소 주최로 이데에서 열린 '생활문화한마당'을 찾아 시민·노동자 학생들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생활문화운동의 사례들을 접해 보았다.

"방상위의 오염된 음식물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공해로부터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점차로 한반도내에서의 공해와 핵

소박하게 말해준다면 약 2백여명의 주부들로 구성된 공추연 여성분과에서는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생명중심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운동을 지향한다며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수일농축산물 안사기, 합성세제(하이타이, 트리오, 샴푸)안쓰기, 무농약 농산물적용 운동, 상봉동 전매증 환자 조사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의정부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인 '명실생활공동체'는 지난 85년경 만들어

조사, 참가를 공동구입, 농촌일손돕기 등 설정 하고있다.

"일상생활속에서 공동체제를 설정하기가 이웃간에 유대감을 갖지 않고, 부부가 함께 과제를 실천하다보니 서로간에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되면서 더욱 사랑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며 느꼈던 것은 역시 세상은 혼자사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며 명실의 한 회원인 강상현씨는 자신의 소감을 털어 놓는다.

이런 생활문화한마당에는 이

개발반대, 독점제별과의 싸움 등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생활공동체의 경우 일상생활속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소박한 운동에서 점차 대도시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데 사회전반에 걸쳐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놓여진 위치에서부터 생활문화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가의 현실은 이데 한가.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위에 이기주의와 소비·향락적 상업주의에 묻혀버린 스스로의 모

시민-노동자-학생의 다양한 실천사례 함께 나누는 생활에서 시작...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

주방운동으로 발전하게 됐지요. 가족들의 안전을 걱정하던 주부들의 고민이 사회현실에 눈을 뜨게한것입니다"라며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분과 사무국장 서진옥씨는 집에서만 안주하던 주부들이 공해추방이라는 사회운동을 시작한 동기를

거 현재 30여부부들로 구성됐는데 사회문제와 개인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아래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할수 있는 작은일부터 주위에서 찾기로 결심, 그 실천방향으로 회원들 스스로 함께 할수있는 공동과제(수원시·수돗물 오염

밖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노동자 놀이대 "홍콩대물림"과 시가대 생활문화 준비모임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들 단체들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해추방운동연합의 경우 식의 주와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수입

습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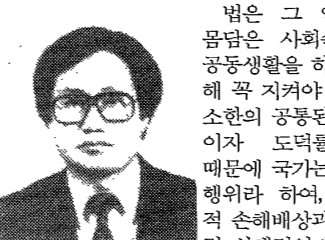
그리고 크게 대답하자 투쟁은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내는 끝없이 이뤄야할 것이라고.

(유기웅記者)

달하나 강에 준법과 도덕정신



金在文 (법정대교수·민법)



법은 그 인간이 몸담은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통된 약속이자 도덕률이다.

때문에 국가가 위법행위를 막고,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신체적인 행벌을 가한다. 그러나 웬만해선 손해배상금이나 형벌을 돈으로 다 해결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약속을 어기며 황금만능사상과 출세계열주의가 최고인 목표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커녕 퇴보와 분열과 자멸과 위기를 면하지 못할 것임은 지난간 개화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누구도 짐작 할 수 없다.

때문에 개화기에 우리 선현들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의 위를 보지 못한다"라고 인본을 통해 설교하였는데, 무조건 법치는 남의 나라의 법을 수입해서 번역해다 쓴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 외국화되지 않기에 법은 잘 지켜지지 않는 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자동차문화의 수입해서 문명국인의 행세를 하면서도, 경작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노상주자나,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는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행위가 되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고통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비용과 댓가를 치루고 있다. 때문에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만든 법은 철저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나 공무원의 존재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나 국가나 잘 만들어질 법은 그 구성원이나 국민들의 도덕정신에 의해 잘 지켜지고 국가의 법을 집행하여 법의 정의를 실현해 주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하고 세금을 내게되는 것이리라.

그간 우리는 식민지 36년간을 인고하면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정신적문화유산·자본까지 송두리채 깎아내고 말살당해 버렸다. 동시에 우리는 물질적으로 굶주리고 힘없고 잠잠없이 의·식·주 해결과 물질적 풍요만을 최고의 성취목표로 하여 모 든 교생을 다 다내하면서 드디어 GNP 4~5천불의 수준에 도달하여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서구의 자본주의 정치는 금융·군정·절약의 직업신성사상으로 더욱 신의 충성을 더하기 위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

품을 제일 값싸게 만들기 위한 계투주의의 연속과 노력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물질적 만족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본가정신은 서구 선진자본가의 정신과는 다른 불합·황금만능사상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연일 신문기사에 매주는 부동산투기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기적인 일부의 기업인들의 치부방법·재물·구속·금융비리·탈법·불법행위·부도덕한 행위, 한탕주의, 사치·남비 모독같은 돈으로 평가되는 배금주의의...참으로 한심하고 가슴아픈 부끄러운 것들이다. 인제양성도 지식인들도이고 인간성회복을 위한 노력실 실행면에도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입시, 뿐만 아니라 온갖 공무원시험·정치가가 되기 위한 요건에도 온갖 직업인을 채용함에 인격의 지지는 1점의 점수로 부여하지 않고, 좁아서라도 으로 일부가 되어 출세를 위해 달달하게 최고를 먼저 차도록 만드는 것 같은 사회교육풍조는 아닌지?

더 늦기전에 모든 교육은 신랄의 "회화도정신" 대주각이 청렴결백하고 신의와 의조를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신비정신" 충·효·예·의·신·열·치·사·양·간·약·시·비·지·심·의 "기본윤리정신" 어려움에 서로 돕던 공동체정신의 실천인 "제의정신" 환란 상충·과실상규정의 자치규범인 "항의정신" 등의 전통사상을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모든 교육과정에 알맞게 재편하고, 이의 이해보다 실천에 더 큰 정수를 주어 전통적인 교육과정·방법·수련활동 및 사회의 이상적인 구성원으로 육성시키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사회·국가나 다른 사회·국가보다 더 잘사는 자유·민주·복지의 통일된 강대국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가 버리고 외국 문화만 배워서 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전통적인 훌륭한 문화정신·도덕성을 오늘에 맞게 되살려 우리의 발전을 위한 (법)문화를 창조해야만 더 잘살 수 있음은 너무나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실천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실천 과제중의 하나인 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7> 일본 군국주의 혐오했던 도미야마 다에코



도미야마의 '중군위안부' 그림중에서

<해방의 비화>이란 저서로 국내에 잘 알려진 도미야마 다에코는 인제해방을 주장해온 일본내에서 흔하지 않은 유형의 여류화가이다.

1921년 일본 고베지방에서 태어난 도미야마는 10대 시절 만주에서 보냈다. 일제에 의한 만주국에서 그녀는 중국·소련 그리고 조선에서 온 피난민들을 보며 불합리한 세계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동경에 와서 여자미술 대학에 입학했지만 보수적인 아카데미즘(제도된 미술-필자)에 융합을 못이루어 도망쳐야 했다. 귀족화향적인 여학교에(시집 잘 쓰기 위해 입학한 부자집 딸들이 많았다) 적성이 맞았을리가 없다.

를 집중적으로 조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수용되어야 할 당시국인 한국에서의 도미야마는 그림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강도 높은 발언을 할 때마다 군사정권의 시선에서 그녀에게 반감을 나타냈다.

도미야마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정신대'라 불렀던 조선 중군위안부를 테마로한 작품들로 잘 알 수 있다.

"역사의 이물속에 사라져 결코 과거를 말할 수 없는 여인들이 있다. 전쟁중에 일본군에 징용되어 중군위안부가 된 조선 여인들이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났으나 그들의 소식은 알 수 없다. 해방이 소리와 함께 남남 바다에 떠도는

현대사의 비극

영화 '남부군'에 대한

국영화계 자체가 전면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근래에 한국영화의 자존심을 건 보기도된 대작 '남부군'이 나왔다.

총제작비 14억, 제작기간 3년 연동원인인 8만명이라는 한국영화사상 갖가지 신기록과 함께 '빨치산의 생활'을 생생하게 그린 이 영화는 우리역사의 비극을 최초로 영상에 담은 작품이라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950년 7월말 '조선중앙통신사'의 중군기사로 전주시에서 파견되어 있던 주인공이(단·성기분)는 인민군의 계속되는 배전으로 인해 통신사의 일원으로 후퇴하다가 순창군 염읍산 골짜기의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유격사령부'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유격활동이 있을때까지 전투태세로 참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정의 빨치산 교육을 거쳐 점차 빨치산의 모습으로 변신해간다. 부상으로 간 호병 박민자(최진실분)와 사랑을 확인하나 슬픈이별을 한 이



영화 '남부군'의 한장면

민족분단의 아픔이 채가시기 전에 동족끼리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 죽이고 적대시하는 전쟁에 휩쓸려 남부군에 있는

남부군은 최후의 싸움하게 되는데 이진부 대령이 떨어져버린 이데는 머리를 눈 속에서 헤매다 쓰러져 토벌대에 사로잡혀 기나긴 빨치산투쟁의 막을 내린다.

이미 서점가에서 70만부를 돌파하는 베스트셀러였던, 6·25전쟁중 남한빨치산을 대외적으로 수거할 수 없게 된 '남부군'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남한 최초로 조직적 파괴행위라 부를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족분단의 아픔이 채가시기 전에 동족끼리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서로 죽이고 적대시하는 전쟁에 휩쓸려 남부군에 있는

수 있는가를 보임으로써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대사를 세로이 조망해 적극적으로 분단교섭의 극복, 민족통일적 회복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감독은 밝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부군' 촬영현장에서 직접 행사들에게 체포돼 영화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는데, UIP영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빨치산의 삶과 고뇌 그려

죽에서도 원형만 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남부군의 안타까운 삶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숨겨진 얼굴인 것이다.

영화 '남부군'은 빨치산의 태동에서부터 투쟁과정, कै발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그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과 인간적 고뇌의 묘사를 통해,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화 시킬

기 위해 투신한다는 신념으로 역사속에 합류되었던 우리의 이기기를 현실로 그려내고 있다.

15일을 굶고도 산다는 빨치산, 맞아 죽고 일어 죽고 죽어가는 빨치산, 보름 살을 절했던 삶의 모습과 인간적 고뇌의 묘사를 통해,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화 시킬

위해 죽어갔는가? (문화부)

'정신대' 주제 조선여인 비극 표현

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은 광산에서의 생활이었다. 도미야마는 1950년대의 10년기향을 탄생을 소재로 하여 제작했다. 60년대 그는 제3세계의 여러나라를 여행했다. 그 '해메인'의 일대 전환점은 바로 김지희씨의 만남이었다. 도미야마 자신의 토로에 의하면 하나의 화가로서 비약하는 개인(開眼)의 축제로서 김지희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인지 70년대이래 도미야마는 한반도의 문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입장에서 도미야마는 중군위안부의 내용들을 작품화 했다. 도미야마의 중군위안부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특히 가해국의 한 자성에 의해서 숨기고 싶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한반도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중요부분을 정리하려는 점에서 웃길수 여미게도 하는 것이다. (그림예 독심)

동약장

●교사·예비교사 한마당
사범대 학생회에서는 30일(오늘) 오후5시 만해광장에서 전교조 선생님들과 예비교사들이 함께 모여 게임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1천2백명의 예비교사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제22대 사범대 학생회-

●함께 합시다
저희 유네스코 학생회(KUSA)에서는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제13차 어린이 초대회'를 개최합니다. 맑고 순박한 우리 벽지 어린이들에게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상:강원도 정선군 동면 선동국민학교 상동분교(학생16명, 교사2명)
초정기간:5월29일~6월2일
-KUSA-

●남성 총동맹회
제경 남성 총 동맹회가 열리니 동맹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연제:5월30일(오늘) 오후5시
어디서:1차-도서관 앞
2차-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부디 이기고 돌아오라
철우야 테니스대회 출전한 너를 보니 '스포츠는 참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글귀가 생각난다.
부디 네 희망대로 예선투과 소원을 이루길! 비록 풀씨가 되더라도 힘찬박수 보내주마. 1회전 넘기지 못할때 3천원 주기로운 약속 절대 잊지마라!
-기흥-

●축하드립니다
행정대학원 鄭九武교수님의 양친인 鄭鳳石(80), 金壽連(79)님의 회혼식(5월19일, 마산 크리스탈 호텔)에 뒤늦게나마 축하송이며 더욱 건강다복하시기를 기원하옵니다.
-행정대학원 제자 합창-

●재동대 전라교 동문회
'단결'이라는 구호아래 거북이들의 술마시고 노래하는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제:5월30일 오후5시
어디서:불상당
회비:돈보따리 3천냥

●주집으로 모임이다
목포 향우회에서는 축제기간동안 동국관앞에서 주집을 열어 동약의 학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남지의 출것함과 함께 담소의 시간을 가져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인제든지 오십시오.
-심학도 짚들이기-

●배재·이화학당 주점
이번 목백 축제기간중 주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1일 오후5시부터는 졸업선배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점운영기간:5월30일~6월1일(3일간)
주점장소:명진관 뒤 왼쪽에 위치

●합격하십시오
행정대 소속선배님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정대 후배일동-

●우리마당 통일문화교실
신촌 '우리마당'에서는 6월4일부터 '통일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분단전쟁의 6월을 맞이하여 상호 이질화된 남북의 현실을 다스림 되돌아 보며 진정한 우리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것을 찾으려는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단소교실:6월4일~29일(월, 금 오후7시)
관소리교실:6월5일~30일(월, 토 오후7시)
탈춤교실:6월8일~7월4일(수, 금 오후7시30분)
자세한 문의는 우리마당(313-7169)으로 하십시오.

●'아들아...' 공연
민요연구회는 민속의 노래, 민중의 노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번 공연은 우리시대에 불려질 민요의 정정성을 모색해 보고 일하는 민중의 긴장한 노래를 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에서 찾아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공연:6월1일-3일
평일-7시30분 토·일요일-4시30분, 7시30분
입장료:일반, 대학생-3천원
단체, 생신직노동자, 종교생(2천원)

●교육현장전
'전교조결성 1주년기념 교육현장전'이 전교조, 민족미술협회의 주축로 열립니다.
현재의 교육의 모습을 그림에 담기 위해서 교육운동에 한층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 민중의 긴장한 노래를 그것을 해결하려는 몸짓들, 아이들의 희망과 절망, 교육문제가 사회의 제반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연제:6월1일~7월 어디서:그림마당 '민'

●편지를 보냅니다
경주캠퍼스 권승수(인문대 철학4)군이 지난 4월30일 '대구직할시 경찰국 점거·농성'과 관련해 구속 수감중입니다.
권승수가 강인한 모습을 잃지않고 다시 우리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주소:경북 달성군 대구교소도 61번 권승수
-인문과학대 인권위원장 박정주-

●미술학과 졸업작품전
경주캠퍼스 미술학과는 제9회 졸업작품전을 오는 31일까지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감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기법회
경주캠퍼스 불교학생회(회장=손경석, 한의예2)주최로 오는31일 오후5시부터 정각원에서 목요정기법회가 열립니다.

●분발합니다
경주캠퍼스 울산 남교동문회에서는 임석 자주대동계 기간중 주점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들어온 수익금을 지난 25일 양말 1백켤레로 바꾸어 학교의 용역 이주머니들께 증정했습니다. 우리보다 분발하십시오.
-이대취(국문1)-

그동안 동약과장을 아끼고 관심을 가져준 동약의 학우들에게 이번 1051호(중강호)를 맞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동대신문과 동약광장은 동약의 학우 여러분의 공간이며 학우여러분의 참여가 있을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화부)

개악 사립학교법 철폐투쟁 확산

교수-학생-직원등 연대 서명운동 돌입 오늘 공개토론회 갖고 대응방안 등 논의

지난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수회성명서 발표이후 학자투신대에 사립학교법철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노조·대학원생등 학내 각 주체들이 호응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늘(30일) 오후 12시30분 불상실에서 갖는다.

회사, 공청회 계획의 설명, 내용반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립학교법의 개정경위, 악소조항, 개정의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曺鍾根(교육학)교수, 노조부위원장 김윤길씨, 대학원학생회장 주태원(정치석사과정)교, 중앙교과위원장 박중면(야간경제3)군 등이 나와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대학원, 노조, 총학생회, 공청회 계획의 설명, 내용반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립학교법의 개정경위, 악소조항, 개정의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曺鍾根(교육학)교수, 노조부위원장 김윤길씨, 대학원학생회장 주태원(정치석사과정)교, 중앙교과위원장 박중면(야간경제3)군 등이 나와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대학원, 노조, 총학생회, 공청회 계획의 설명, 내용반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립학교법의 개정경위, 악소조항, 개정의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曺鍾根(교육학)교수, 노조부위원장 김윤길씨, 대학원학생회장 주태원(정치석사과정)교, 중앙교과위원장 박중면(야간경제3)군 등이 나와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대학원, 노조, 총학생회, 공청회 계획의 설명, 내용반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립학교법의 개정경위, 악소조항, 개정의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曺鍾根(교육학)교수, 노조부위원장 김윤길씨, 대학원학생회장 주태원(정치석사과정)교, 중앙교과위원장 박중면(야간경제3)군 등이 나와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대학원, 노조, 총학생회, 공청회 계획의 설명, 내용반제,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사립학교법의 개정경위, 악소조항, 개정의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曺鍾根(교육학)교수, 노조부위원장 김윤길씨, 대학원학생회장 주태원(정치석사과정)교, 중앙교과위원장 박중면(야간경제3)군 등이 나와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동연 회칙 일부 개정 학자투위·권리 옹호위등 신설

'5월동아리정치대표자회의'가 회칙일부개정안 심의, 1년사업안 예산안확정, 대표자수면대회 등을 안건으로 지난 24일 오후5시 학생회관3층(상원전시관)에서 대표자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로 구성 △특별기구로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와 동아리권리옹호위원회 설치 △신규동아리 등록은 매년 1회씩 한다 등이다.

이날 1차합격자는 전국 총4백21명으로 본교는 전국 7위를 차지했다. 한편,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스이학선(경영3) △이영찬(경영4) △황의분(회계4) △문상미(경제4) △인성호(경영3) △양성희(경영 3) △강효식(회계 3) △류진승(회계 3) △김용수(회계 3) △매제환(회계 3) △한상덕(일반대학원)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7개 기구에 징계-주의

감사특별위원회 비효율적 예산집행등 지적

제22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심철신·사회대의원외장)는 1/4분기 중앙기구및 단과대감사를 지난 28일 모두 마치고 분과대와 경상대에 징계조치, 동연등 5개기구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날 14일 학생회비와 교비인출을 중지당하는 징계를받는데 이어 경상대도 1차감사사무소 2차감사자료비비등의 책임을 물어 학생회비및 교비, 학술진흥비의 인출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전면중지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런데에서 본교 야구부는 지난 26일 서울대를 13대0, 7회홈런으로 이기고, 28일 홍익대를 맞아 7대3으로 이겼으며, 이제(29일)한일은행을 9대0로 격고 4강에 진출했다.

하계 외국어특강 실시 5개 강좌, 1일부터 접수

본교 외국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하계외국어 특강'을 오는 6월 25일부터 8월17일까지 개설한다.

신설기간은 내달 1일부터 외국어교육원과 교내서점에서 접수하며 수강료는 1강좌당 5천원이다.



관성적인 집회형태는 지양돼야 한다. 지난 22일 '광주총회보고및 삼인정권-폭력정권타도를 위한 실천대회'에서 '빛속의 집회' 발언자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대중의 결집력과 이해를 끌어내지 못하는 어떤 집회도 의의를 갖지 못할것이다. <글=남철우 기자, 사진=김영만 기자>

불교학술대회 '통일과 불교의 역할' 남북불교교류 추진 '청신호'

'남북통일을 위한 불교학술대회'가 오늘(30일) 오후1시 조계종총회 남북불교교류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프레스센터 20층(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따라 2학기 '수강신청'이 내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종합시간표 작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생 과학 아이디어 작품 오늘부터 입상작 전시회

본교 공과대 주최, 제8회 전국 중·고등학교학생 '과학이디어작품전'이 오늘(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7일간 산업기술연구소후원으로 원호관(E606)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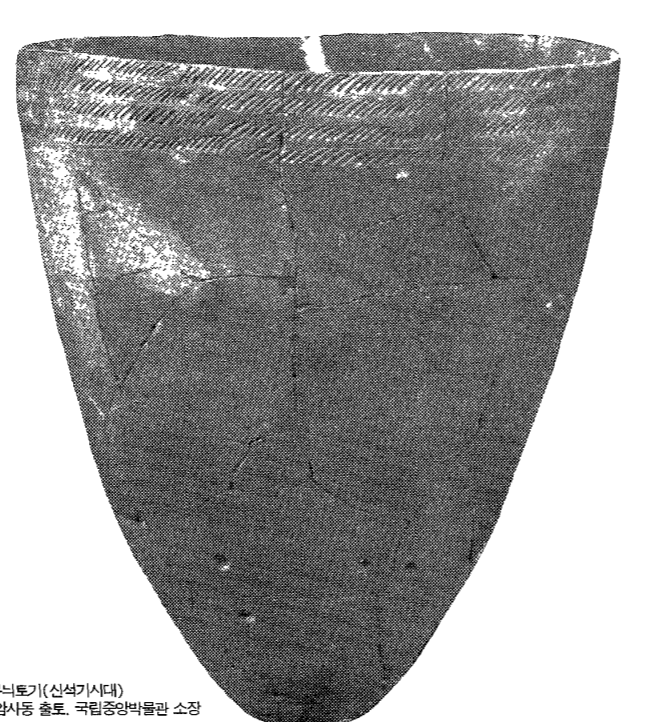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14일부터 2일간 정중체육관에서 열린 '이제' 대회에서 본교는 페타급에 정진환(행정 1), 라이트레드급에 김석현(경제 3), 라이트 헤비급에 김세일(예교 4), 헤비급에 최영준(예교 1)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V 나래기획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빛살무늬토기(신석기시대) 서울 암사동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조들의 슬기로운 삶이 깃든 빛살무늬토기

값비싼 크리스탈의 화려함도 유리창의 세련된 디자인도 빛살무늬 속에 담긴 깊이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정성과 생활이 깃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신문 광고에도 여러분의 정성과 슬겉이 담겨져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나래기획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누가: 대학신문광고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교직원·학생 및 동문등) 무엇이든: 대학신문 광고를 보고 “이건 안 좋은데” “요건 좀 고쳤으면” “이런게 실리면 좋겠텐데”... 하는 생각 모두 다

어떻게: 제약없이 자유롭게 (design 및 copy도 포함) 어디로: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34-5(구)배재학교 주시경관 103호 (주)나래기획 광고기획부

언제: 지금 끝(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TEL: 779-2355-6)

※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전교조 깃발 높이 들고 멋있게 교단으로 돌아갈것”

전교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들 만나서

1989년 5월 28일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성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 28일로 첫돌을 맞은 전교조는 창립이후 사상유례없는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85명이 구속되는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 조합원 1만4천여명과 후원교사 3만 천여명을 확보해 민주민주운동의 현주로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6일 전교조 창립 1돌 기념으로 해직교사와 학생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전교조에 대한 의문점들을 풀어 인식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송경현(34.전수상고 국사담당)교사와 이승호(퇴수상고 3년제학)군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즉, 전교조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참교육이다'라고 제시한다면 그것도 또한가로의 '교육의 자율성'을 막는 것이 되겠지요.

이: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어려운

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전인 교육, 즉, 올바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을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 전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

이: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 전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

이: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사'만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옳고 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참교육을 말하느냐'라는 식의 질책보다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선생님들은 현재 어디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송: 전교조 동북부지회(966-6364, 967-3296)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의 지회는 2백여명의 조합원이 있어 단원지회로서는 가장 큼니다.

이: 사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듣는 얘기가 다 생소한 것들인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송: 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워야 할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현 정권은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도권 내에서 전교조가 가지는 한계도 필것입니다.



참석자
송경현 선생님
(前 덕수상고 국사담당)
이승호군
(現 덕수상고 3학년)
때: 5월 26일 오후 2시
곳: 본사 회의실

“전교조는 조직에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체계를 갖지만 그 이전에 ‘참교육을 위한’ 것, 사익을 위한 파업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혹시 선생님께서는 지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는지요?

송: 마칠 것은 6월 2일부터 한달 간 매주 토요일마다 '온누리배움터'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로 참교육과 참인생을 그리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한 바람직한 가치관, 민주주의와 노동조합, 경제문제, 민족통일 등에 대한 배움터입니다. 특수상고학생들도 많이 참석하면 좋겠는데 제가 재학생들은 잘 몰라서 연락도 못했군요.

이: 요즘 한겨레 신문을 보면 전교조 격려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송: 제가 어제(25일)도 한 학교의 광고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현재 원상복귀 서명운동이나 참교육을 희망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교사들을 색출해 알뜰하게 가하는 등 탐입이 심합니다. 그러한 탐입을 뚫고 게재되고 있는 격려 광고는 참교육을 향한 저희 모든 교사들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는 참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 참교육이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 학생들과 자주 만나 '참교육' 등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도움이 많이 못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송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 학생들과 자주 만나 '참교육' 등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도움이 많이 못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송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경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학생들과 하심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더구나 제가 제직됐었던 덕수상고의 학생과 만나니 정말 반갑군요.

이승호: 선생님이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어 알뜰한 참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저도 무척 기쁩니다. 전교조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모르는 것들 투성이어서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송: 궁금한 것이 많으니 오히려 반갑군요. 아는데까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처음 전교조를 결성하실때 저희들에게는 숨겨진 것이 많이 보여졌는데 사실 저희들은 전교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전교조 하시는 선생님들을 메스컴을 통해서 보면 '참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참교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송: '참교육'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우선 지난 89년 8월달에 정부에서 소위 '참교육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참교육은 의식화교육이 아니라 참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을 과정·응용으로 보면서 이사회와 협력 내지는 협력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뜻하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을 만약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참교

송: 다시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교사·학생·학부모의 3주체가 모여서 어떻게하면 가장 올바른 교육을 만들어내고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전교조라는 교사의 조직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답을 제시했음에는 그것 역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참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이 시기보다는 좀 더 후한 답이 없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사·학생·학부모가 만나서 어떻게하면 올바른 교육이 되어 나갈 것인가를 찾아야 하고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참교육'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하게 네개의 사지선다형중에서 정답이 하나나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네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사담이 살아가는 방법의 정답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객관화해서 평가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세가지는 완전히 옳지 않다고

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내용만 경쟁만을 유발시키는 교육체제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소위정권중에서 말하는 중산층의식을 재생산해내는 교육체제가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의 틀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교육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

것은 회사를 망치는 것이라는 즉, 자본가의 논리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신성한 노동자가 될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즘은 저희에게도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 등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이상한

개이란 교육열망'에 대해 서로가 격려해야 할것입니다.

이: '참교육'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조합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 꼭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도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교조만이 제반 문제들을 풀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이: 요즘 한겨레 신문을 보면 전교조 격려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송: 제가 어제(25일)도 한 학교의 광고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현재 원상복귀 서명운동이나 참교육을 희망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교사들을 색출해 알뜰하게 가하는 등 탐입이 심합니다. 그러한 탐입을 뚫고 게재되고 있는 격려 광고는 참교육을 향한 저희 모든 교사들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는 참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 참교육이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 학생들과 자주 만나 '참교육' 등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도움이 많이 못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송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주체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참교육을 열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얼른 복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적대적 모순

는 정파들 간에 사상투쟁을 보면 심해지는 '유이적'이라는 생각이 지도 등다. 구국운동 혹은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데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런데 본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투쟁 혹은 정파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

간에 많은 노력과 창의가 요구된다. ▲최근 본교에서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정세속에서 정파간에 사상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정파들 간에 내놓은 정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방식이다. 대자보 형태로 벌어져

면 새로운 측면에서의 지도, 상호원조질책, 후호적 비판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내달고 있는 것 같다. 학생대중들과의 통일·단결을 꾀하기 보다는 정파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다는 전제가 학생들간에도 지배적이다.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간에도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해만 일어난다. 학생회라는 '대중중'에서의 사상투쟁은 어디까지나 학생회성원과의 통일과 단결을, 공동행동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경으로 본교내의 각 정파가 서로간에 설득하고, 인정하고, 후호적 비판을 가하고 원조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 배우는 과정 즉, 교과서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은것 같습니다.

송: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고의 경우 '어떻게 하면 회사경영을 할까'서 이윤을 많이 남길 것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대요'라는 과목

이: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이: 그런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이: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이: 그런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이: 그러한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이: 그런 교육의 문제점이 저희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가슴가득 젊음안고, 배낭가득 꿈을담고...



「정신의 편력은 경험의 편력과 맞닿는다. 여행의 양이 곧 인생의 양이다.」
굳이 이런 격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행은 누구나 가장 해보고 싶어하는 것중의 하나로 꼽는다. 배낭 하나로 세계를 주유한 반대중주(28세) — 그는 20일간의 국내무전여행경험이 계기가 되어 환업도 중단하고 해외여행을 떠났을 정도의 여행광이다.
「생활이 인생의 산문이라면 여행은 인생의 시입니다. 여행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만족시켜 주지요.」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해외여행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에 배낭여행 전문의 여행사를 차렸다.
「배낭여행은 비용도 절감되지만 그 나라의 문화 등 참된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따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가 수많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낀점은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도 세계를 누비면서 국제적 안목을 키워야겠다는 것이다.
「이제 해외여행은 더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 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운것은 그대로 국력이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볼수록 자기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까요.」

배낭 여행가 변태중
● 81년 동국대 입학
● 86년 10월부터 89년 4월까지 세계 여행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